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주름 확 잡은 ‘완성체 폴더블’... “혁신으로 고객 약속 실현”

삼성, 갤럭시 Z 플립5·폴드5 공개

삼성전자의 하반기 기대작 ‘5세대 폴더블(접는) 스마트폰’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폭넓은 기능을 제공하는 혁신을 더해 폴더블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힌지(경첩) 부분의 화면 주름을 개선하는 등 ‘완성체 폴더블’의 기대감을 키웠다.

▶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는 26일 사상 처음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2023’을 열어 ‘갤럭시 Z 플립5·폴드5’와 ‘갤럭시 워치6 시리즈’,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공개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는 삼성전자의 혁신 기술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한 최신작”이라고 말했다.

플립5·폴드5는 콤팩트한 디자인, 다양한 맞춤형 기능, 강력한 성능을 통해 사용자가 기기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특히 최초로 적용된 물방울 모양의 ‘플렉스 힌지’는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심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됐다. 폴더블만 가능한 ‘플렉스캠’으로 다양한 각도의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플립5·폴드5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같은 퀄컴

최정상급 R&D·제조 역량 활용 물방울 모양 ‘플렉스 힌지’ 적용 심미적 개선·외부충격 분산 설계 ‘플렉스캠’ 통해 사진촬영 다각화

내달 1일 사전예약... 11일 출시

스냅드래곤82세대가 탑재돼 더 강력한 성능과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를 지원한다.

특히 플립5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3.4형으로 전작보다 2배가량 커진 ‘플렉스 윈도’로 탄생했다. 기기를 접은 상태에서도 플렉스 윈도에서 SNS, 알림 등 각종 메시지 확인과 전송이 가능하다. 삼성페이, 카메라 촬영 기능도 지원한다.

폴드5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가볍고 얇은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좋아졌고, 배터리 효율이 향상됐다. 대화면의 장점인 멀티태스킹 기능도 강화됐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폴더블 카테고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정상급 연구개발(R&D)과 제조 역량을 활용해 지속해서 카테고리를 최적화하고 개선해왔다.

갤럭시 Z 플립5·폴드5는 사용자의 삶의 방식과 기대치를 충족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됐다. 더 두꺼워진 충격 흡수층과 디스플레이 후면 지지대가 화면에 가해지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를 공개하고 있다.

충격을 완화해준다. 갤럭시 워치6 시리즈는 통합적인 건강 관리 기능이 눈에 띈다. 삼성 바이오엑티브 센서와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해 △수면 관리 △피트니스 코칭 △심장 건강 모니터링 △생리 주기 예측 등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태블릿PC를 지향하는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갤럭시 탭 S9 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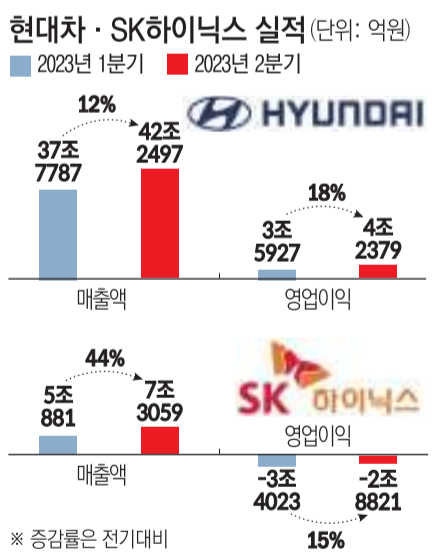
라’, ‘갤럭시 탭 S9 플러스(+)’, ‘갤럭시 탭 S9’ 등 세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에는 △다이내믹 AMOLED 2X 디스플레이 △스냅드래곤 82세대 프로세서 △베이퍼 챔버 탑재 △IP68 방수방진 등 프리미엄 기능이 대거 적용됐다. 이날 공개된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는

다음달 11일 공식 출시된다. 사전 판매는 플립5·폴드5의 경우 다음 달 1~7일이며, 갤럭시 워치6 시리즈와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한다. 플립5·폴드5 가격은 256GB 모델 기준 각각 139만9200원, 209만7700원으로 전작 대비 5만~10만 원가량 인상됐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현대차·SK하이닉스, 실적 희비... 하반기 동반웃음 예고

현대차, 2분기 영업익 4.2兆 최대 연매출 성장률 최대 15% 상향 조정

SK하이닉스, HBM3·DDR5 매출↑ 영업손실 규모 전분기비 15% 줄어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현대차는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면 SK하이닉스는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내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9면

현대차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2조 2497억 원, 영업이익 4조 2379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4%, 42.2% 증가했다. 이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률은 10.0%로 2013년 2분기(10.4%)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판매 대수 증가, 제네시스·스포츠티윰리터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우호적 환율 효과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판매 대수는 105만97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

기 대비 12.7% 증가한 20만5503대, 해외 시장에서 7.6% 늘어난 85만4210대가 팔렸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80조 284억 원, 영업이익 7조 8306억 원이다. 현대차는 상반기 호실적을 반영해 올해 초 제시했던 연간 실적 가이드를 상향 조정했다. 매출액 성장률은 종전 10.5~11.5%에서 14~15%, 영업이익률은 8~9%로 높여 잡았다.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정부장은 “가동률 개선에 따른 생산 확대와 견조한 대기 수요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며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상에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

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2조 882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7조 30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 줄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1분기에는 3조 402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상반기 적자 규모만 6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4% 늘고 영업손실 규모는 15% 줄었다. HBM3(4세대 고대역폭메모리)와 DDR5 등 차세대 메모리 판매가 확대된 영향이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2분기에 D램과 낸드 판매량이 늘었다. 특히 D램의 평균 판매단가(ASP)가 1분기 대비 상승한 것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PC, 스마트폰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며 DDR4 등 일반 D램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인공지능(AI) 서버에 들어가는 높은 가격의 고사양 제품 판매가 늘어 D램 전체 ASP가 1분기보다 높아졌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메모리 업황에 대해 AI 메모리 수요 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메모리 기업들의 감소 효과도 뚜렷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장효진 기자 js62@
강문정 기자 kangmj@

“대서양 해류 순환, 2025년부터 붕괴”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연구 발표 지구 빙하기 현실화 가능성 커져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 생태계와 세계 경제에 불러올 재앙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열 순환을 돕는 대서양 해류 시스템이 금세기 내 붕괴하고, 세계 경제가 ‘메가 쇼크(대충격)’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페테르 디틀레우센 교수와 수잔네 디틀레우센 교수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계 기후 시스템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심층 해수 순환 시스템인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AMOC)’이 2년 뒤인 2025년부터 2095년 사이에 파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바다에는 극지의 차가운 물이 깊이 가라앉아 저위도 지역으로 흘러가는 심층 해수 순환이 있다. 남반구는 남극역전순환(AOC)이, 북반구는 AMOC가 대표적이다. 거대한 수증권 베이어벨트로 비유되는 AMOC는 열대지방의 따뜻한 물을 북대서양으

로 운반하면서, 지구 기온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팀은 1870~2020년까지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를 바탕으로 AMOC를 분석한 결과, 이 시스템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를 발견했다. 최근 수년간 대서양 최북단 해역의 온도가 더 큰 변동을 겪었으며,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빠르면 2년 내, 늦어도 21세기 안에 AMOC가 멈춰설 것으로 전망했다. 붕괴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은 2039~2070년으로 좁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과학계 관측보다 AMOC의 티핑 포인트(급격한 변화 시점)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 과학자들은 AMOC 붕괴가 금세기 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봤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국제 기후변화 시나리오 비교·연구(CMIP)’ 모델을 바탕

으로 한 평가에서도 21세기 안에 AMOC가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 8면에 계속

변효선 기자 hsbhyun@

쓰면 직권남용, 안 쓰면 직무유기... 살생부 된 '4대강 보고서'

정쟁 휩싸인 '환경부 딜레마'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우려된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정책에 힘을 실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고, 실제 추진까지 맡는 실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다. 이들은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가 공식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이다. 정권에 맞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다 정작 정권이 바뀌면 역적이 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보인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4대강 사업'은 정치가 정책을 집어삼킨 일명 '정책 정쟁화'의 끝판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매일 주민 항의에 시달리고 환경단체에 역살까지 잡히면서도 밤새워 준비한 자료

4대강 보 5년마다 "해체" "존치" 과학 조사·평가보다 '정권 눈치' 수뇌부 바뀌면 순식간에 '역적' 실무직 공무원 '보신주의' 팽배

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진짜 어렵게 설득하는 등 힘들게 진행한 사업이지만 정권이 바뀌자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물론, 당시 공무원들의 모든 노력마저 부정당했다"고 하소연했다.

4대강은 사업 초기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위장판이라는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아, 총 5년의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이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해체나 개방 정책의 대상이 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자 상황이 또 달라졌다. 이달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즉시 4대강 16개 보



세종시 금강 세종보가 13~15일 쏟아진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환경부는 세종보를 비롯한 전국 4대강 16개 보 모두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그간의 정부 발표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환경부는 2021년 "10년 이상 BOD와 총인 농도 변화를 보면 보 설치·개방과 상관성이 보

이지 않는다"라면서 "금강 공주보 수문 개방 후 녹조와 저층 빈산소, 퇴적물 개선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관련 주무부처들이 2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바뀐 것은 '권력의 주인' 뿐이다.

공직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과학적 분석에 대한 정부의 취사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4대강 사업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관련 다양한 보고서가 있지만,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정책 방향에 맞춰 과학적 분석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전 정부에서 국정 운영기조에 맞춰 정책을 추진했다가 현 정부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점은 환경부 내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안타까워했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과 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당시 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 유기'로 검찰에 가게 된다는 말이 돌 정도"라며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눈치껏 분위기를 살피며 적당히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한숨 돌린 '역전세난' ... 한숨 쉬는 '가계부채'

집주인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DSR 40%→DTI 60% 1년간 적용 '가계대출 급증' 등 부작용 우려도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계약 종료 후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기존 1.25~1.50배가 1.0배로 완화된다. 규제 완화는 이달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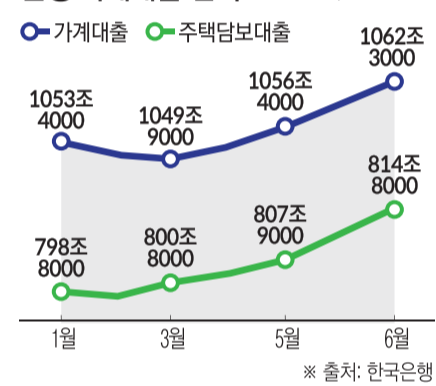
규제 완화 대상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개인·임대사업자다. 주택 형태엔

아파트 외에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한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집주인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 자력반환 능력이 확인되면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단위: 억원, 월말 기준)



심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예외 적용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DSR 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

다"면서 "DSR을 예외 적용하면 상황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대출이 나갈 수 있어 연체율 상승 등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역전세난을 피하기 위해 불가역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면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 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전 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요령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줄이기 성공!

- 하나! 에어컨 설정온도 1°C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C 유지하기 **0.41kWh**
- 둘!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
- 셋!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0.32kWh**

하루 1.09kWh 절감

하루 1kWh, 한달 30kWh 절감 → 한달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 14% 절감

전력 사용량	299 kWh	30 kWh 절감	269 kWh
전기요금	55,290 원	7,520 원 절감	47,770 원

주) 기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99kWh/월) 기준(출처: 2020년 에너지조사) 주) 전기요금은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계산기(주력용 저압, 기타계열, 전력요금 및 부가세포함)를 통해 산출

일곱가지 더 실천하면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능 끄기	0.1kWh/일
세탁기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전기밥솥 보온시간 ↓	0.06kWh/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하루 1.08kWh, 한달 32.4kWh
시원한 차림으로 쿨맵시 실천하기	하루 0.81kWh, 한달 24.3kWh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하루 0.54kWh, 한달 16.2kWh

<1.9인치→3.4인치>

커버 화면 두배 커진 'Z플립'... 앱 4개 동시에 쓰는 'Z폴드'

베일 벗은 5세대 폴더블폰

삼성전자가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2023'에서 선보인 '갤럭시 Z플립5·Z폴드5'는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제품이다.

우선 '갤럭시 Z플립5'는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 모두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기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뛰어난 휴대성에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로 소개되는 커버 스크린 '플렉스 윈도우(Flex Window)'는 혁신적 모바일 경험과 스타일을 제공한다. 약 86.1mm(3.4형)의 플렉스 윈도우는 기존 대비 크기가 확대됐다. 플렉스 윈도우는 13개의 기본 위젯(Widgets)을 포함해 다양한 추가 위젯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폰을 접은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다양한 기능과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음악을 선택하고, 날씨를 확인하거나, 실시간 주식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플렉스 윈도우를 통해 폰을 펼치지 않아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쿼티(QWERTY) 키보드'를 사용해 문자에 답장할 수 있다.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밀면 '삼성페이'가 실행된다. 플렉스 윈도우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다양한 카메라 경험도 선사한다. 커버 스크린에서 바로 고화질 사진을 찍고 촬영물을 쉽게 확인 및 편집할 수 있다.

'갤럭시 Z폴드5'는 갤럭시 Z폴드 시리즈 중 가장 가볍고 얇은 디자인에 배터리 효율이 향상돼 휴대성과 강력한 성능을 모두 제공한다. 1세대 갤럭시 폴드 대비 다중작업도 한층 강화돼 '멀티 윈도우(Multi Window)', '앱 연결성(App Continuity)', '태스크바(Taskbar)',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 등 더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Z 폴드5
AP	퀄컴 스냅드래곤8 2세대	
화면	메인 6.7인치 커버 3.4인치	메인 7.6인치 커버 6.2인치
램	8GB	12GB
용량	256/512GB	256/512/1000GB
배터리	3700mAh	4400mAh
무게	187g	253g
방수	IPX8	
출시	8월 1~7일 사전판매, 11일 출시	

Z플립, 커버스크린 위젯 확 늘려
접은 채로 촬영·편집·문자·주식

Z폴드, 멀티태스킹·그래픽 강화
게임·업무 등 강력한 생산성 제공

많은 폴더블 최적화 기능을 지원한다. 얇아진 'S펜 폴드 에디션'은 실시간 노트 필기 등 더욱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한다.

특히, 앱 간 빠른 전환을 도와 사용자들로부터 유용한 기능으로 주목받는 '태스크바'는 이제 최대 4개의 최근 사용 앱(Recent app)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돼 더욱 효율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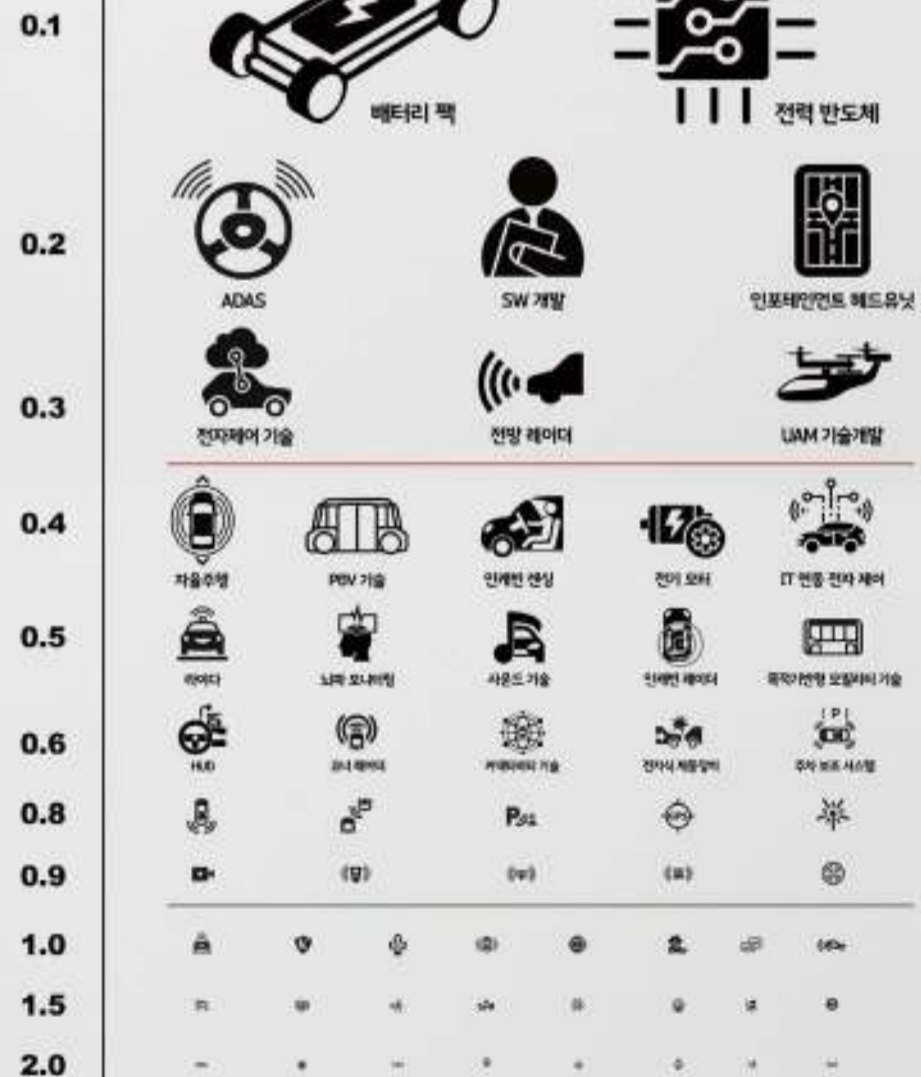
또한, '두 손 드래그 앤 드롭(Two-handed drag and drop)' 기능을 지원해, 한 손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갤러리 앱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삼성 노트(Samsung Notes)를 열어서 이미지를 쉽게 붙여넣는 등 앱과 스크린 전환이 더욱 편리해졌다.

약 192.1mm(7.6형)의 메인 스크린은 세련된 디자인과 넓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한다. 또한, 전자보다 약 30% 이상 높아진 1750니트의 최대 밝기를 지원한다. 향상된 그래픽 성능과 AI 솔루션을 통해 역동적인 게이밍 경험과 멀티 게임 기능도 지원한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왼쪽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워치6 클래식, 갤럭시 Z 폴드5. 사진제공 삼성전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빌리티 기술의 미래, 현대모비스가 함께합니다



“심장 리듬이 불규칙합니다” 부정맥 감지하는 ‘갤워치6’

베젤 줄여 화면 20% 넓히고
회전 베젤 채택 ‘감성 한스폰’

삼성전자가 건강 관리 기능이 강화된 '갤럭시 워치6 시리즈'와 성능, 사용자 경험을 강화한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서 갤럭시 고유의 원형 디자인을 적용한 '갤럭시 워치6'와 회전식 물리 베젤을 적용해 아날로그 위치의 감성을 담은 '갤럭시 워치6 클래식'을 선보였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사장)은 “수면 습관, 운동 코칭, 심혈관 모니터링 등 사용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 솔루션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갤럭시 워치6 시리즈는 일상에서 사용자의 건강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갤럭시 워치6 시리즈는 사용자 심박수 구간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달리기 가이드를 지원한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애

플리케이션의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IHRN)' 기능도 탑재했다. 사용자의 불규칙 심장 리듬을 연속으로 감지하면 이상 징후로 판단해 '심방세동' 가능성을 알려준다.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사용자 피부 온도를 측정해 생리 주기를 예측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갤럭시 워치6 시리즈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면 점수를 상단에 배치했고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한눈에 보여주는 등 매일 아침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전달한다.

갤럭시 워치6와 갤럭시 워치6 클래식은 베젤을 줄이면서 전작 대비 약 20% 넓어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고해상도 슈퍼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최대 2000니트(nit) 밝기를 지원하며 야외 시인성을 향상시켰다.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스티디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 △ 갤럭시 시그스냅드래곤8 2세대 프로세서 △ 열 분산 베이퍼 챔버 탑재 △ 비전 부스터 △ IP68 방수 방진 등 프리미엄 기능이 최초 적용됐다. 장효진 기자 js62@

‘모나리자 모호성’에 빠진 韓경제… “잠재성장률 제고 시급”

현대경제연구, 한국 경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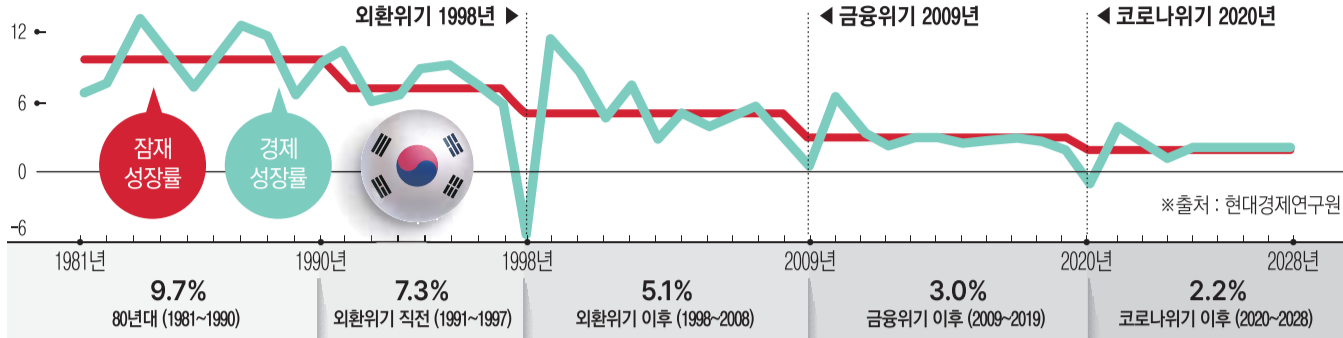
정부-민간-전문가 시각차 크고 경기 방향성에 견해 일치 안 해 ‘인플레이션 착시’도 불확실성 높여 수출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 주문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모나리자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 불확실성 완화를 통해 민간 주체들의 경제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회귀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모나리자 모호성’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지가 “팬데믹 이후의 경제가 모나리자 같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나리자 효과’로 비유한 데에서 착

한국 잠재성장률 (단위 : %) ※ 잠재성장률은 HP필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원자료 중 1981~2022년 GDP는 실적치, 2023~2028년 GDP는 IMF 전망치를 사용.



안했다고 밝혔다. ‘모나리자 효과’는 ‘모나리자’ 초상화 속의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표정하게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모나리자 모호성은 특히 미국 경제에서 관찰되는데, 최근 한국 경제도 경제 상황 판단에 정부와 민간의 시각에 차이가 크고 나아가 경제전문가 및 경제연구기관 간 경기 방향성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면서, 최근 대두되는 경제 현안에 대한 시장 내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진단한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 현상은 △경기 방향성 혼란 △부분별 수출 경기의 격차 △인플레이션 착시 △산업별 경기 양극화 △심리지표와 실물지표의 괴리다.

먼저 경제 현황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돼야 할 경기종합지수의 방향성이 일관되

지 못하면서 현재 경기 판단과 미래 경기 전망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전체 수출 경기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 수출의 감소가 침체의 체감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6월 수출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대중국 수출은 19.0% 감소했지만, 대중국 수출을 제외한 수출은 2.2% 감소에 그쳤다. 6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8.0% 감소한 데 비해 반도체

를 제외한 수출은 전년 동월과 같았다.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으나 물가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아 가계의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위축으로 실제 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착시’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 산업별 상이한 업황으로 개인별 체감 경기 수준과 방향성에 격차가 발생하는 점과 경제심리 회복 수준에 못 미치는 내수 경기도 ‘모나리자 모호성’의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모나리자 모호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거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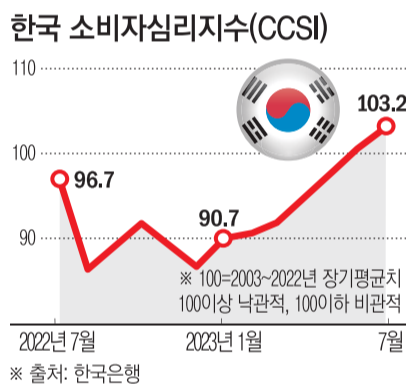
주원 실장은 “우선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시급히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부가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현재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부합되는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韓·美 소비자 심리 ‘동반상승’했지만... 장기 전망엔 ‘물음표’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기대 관련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물가상승 둔화에 따라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다만 미국의 경우 경기침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는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2로 전월 대비 2.5포인트(p)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한 소비 회복 흐름과 수출 부진 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이다. 지수 수준은 5개월 연속 상승하며, 두 달 연속 100을 상회했다. 이는 장기평균치(2003~2022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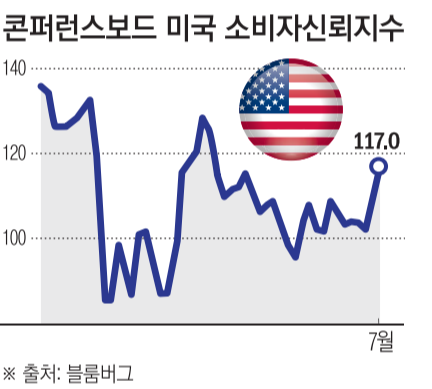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이번 달 3.3%로 전월(3.5%)보다 0.2%p 하락했다.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 역시 4.3%로 지난달보다 0.3%p 내렸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비중은 공공요금(75.9%), 농축수산물(34.5%), 개인서비스(26.1%) 순이었다.

한은 7월 소비자동향 조사 소비와 수출 회복 기대감 등 영향 CCSI 103.2...전월비 2.5p 상승 기대인플레이 3.3%... 0.2%p 하락

미국 7월 소비자심리지수 117.0 집계...2년 만에 최고치 “내년 침체 가능성” 장기전망 ↓

전월에 비해서는 개인서비스(+3.1%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3.1%p), 석유류제품(△1.7%p) 비중은 감소했다. 금리수준 전망은 4회 연속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장금리 상승세 등에 영향받아 높은 금리 수



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7p 올랐다. 미국의 경우 25일(현지시간)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7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117.0으로 2021년 7월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공개된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둔화한 영향이 컸다. 데이터 피터슨 콘퍼런스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수는 지난해 줄곧 우세했던 황보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5만 달러(약 6400만 원) 미만 소득자와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 모든 연령층에서 신뢰도가 분명하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했다. 설문 응답자의 70.6%는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다소’ 또는 ‘매우’ 있다고 답했다.

6월 69.9%보다 높아진 수치다. 또 향후 6개월간 자동차나 주택 구매 계획자보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 제품 구매 계획자가 더 적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여행과 레크리에이션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록 기자 syr@ 고대영 기자 kodae0@

‘대단지·개발호재’에 우르르... ‘서울 6배·경기 4배’ 분양권 거래 ‘활활’

서울과 경기지역 상반기 분양·입주권(이하 분양권) 거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최대 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 시장 회복세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사업경기지수 전망까지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부동산시장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부동산포털 통계에 따르면, 서울 상반기 분양권 거래량은 27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7건보다 491%(231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지역 역시 같은 기간 1175건에서 4067건으로 246%(2892건) 급증했다. 서울은 약 6배, 경기지역은 약 4배가량 분양권 거래량이 상승한 셈이다.

올해 초 정부의 전매제한 규제 완화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량은 갈수록 늘고 있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량은 1월 20건에 그쳤지만 4월 56



건, 5월 80건으로 경증 뛰었다. 지난달에는 8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1월 432건에서 5월 937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달 752건으로 소폭 줄었다. 다만, 신고기한이 남은 이달 거래량은 이날 기준으로 498건에 달해 5월 거래량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분양권 거래량 상위 단지는 핵심지 대단지이거나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 내 단지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에선 강

전매제한 규제완화로 거래량 급증 ‘주택사업지수’도 올 들어 최고치 전문가 “청약·매매시장 회복” 점쳐

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총 51건 거래돼 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초대형 단지로 전용면적 84㎡형은 분양가

대비 웃돈만 5억 원이 붙었다. 강북지역에선 동대문구 전농동에 들어서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퀘어L65’ 분양권이 43건 거래됐다.

경기도에선 수원과 용인, 평택지제역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각종 개발이 한창인 지역의 거래량이 치솟았다. 또 안성시와 광주시 등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에도 수요가 몰렸다. 수원시 팔달구 ‘수원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상반기 221건의 분양

권 거래가 완료됐다. 양주시 ‘양주옥정신도시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2단지’는 163건 손바뀜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권 거래 증가는 신축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시장 상황에 실수요가 분양권 수요로 옮겨간 영향”이라며 “특히 수요가 몰린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려운 지역 중 시세 파악이 수월한 대단지 중심이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분양권 거래시장은 물론, 청약과 매매시장 강세가 이어질 것인 전망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주택사업경기지수’는 전국 기준 전월 대비 10.3포인트(p)상승한 93.2를 기록했다. 이는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105 이상, 115 미만’일 경우 주택경기 보합·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주산연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의 회복세와 주택 매매량 증가 등 시장 회복에 주택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욱 기자 dragon@

학생인권조례 손본다... 당정 “교권보호法 조속 처리”

학생, 교사 폭행에 누워서 수업 정상적 지도는 아동학대 신고 조례 중 ‘교권침해’ 사항 개정 법안 8건 계류... “통과 주력”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으로 부터 폭행당하고, 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단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한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당정은 함께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것”이



이주호(오른쪽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 비서관회의를 통해 교육부에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학생인

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조례 제정 등의 이유로) 수업하는 교사 옆에 제자가 드러누워 휴

대폰을 봐도 제재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하는 현실을 그냥 둘 순 없다. 그리고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고치는 게 맞다”면서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고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교권 보호’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이외에도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해당된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확성기 통한 집회 소음 규제 강화 출·퇴근때 주요 도로 점거 못한다

대통령실 ‘집회·시위 개선’ 권고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도 주문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고려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총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계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 중 10만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인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만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토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알아서 챙겨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285호 (2023-06-26 ~ 2024-05-31)

신한투자증권

7년만에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우려”

용산서 2마리 확진

국내에서 7년 만에 고양이에게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대규모 확산을 비롯해 사람과 친숙한 동물인 만큼 인체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직 고양이에게서 인체로 감염된 사례가 없고, 감염 위험성이 낮아 반려묘나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의 고양이 보호소에서 25일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정부, 추가로 5마리 검사 진행 현재 'n차 전파' 가능성은 희박 해외 감염사례 있어 경계해야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중

1형)에 확진된 이후 추가로 해당 보호소의 고양이 5마리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중인 5마리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국내 고양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은 2016년 12월이다. 당시 확인된

유형은 H5N6형으로 아직 국내에서 인체 감염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의 인간 감염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조류 사이에서만 퍼졌지만, 최근 조류보다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더 가까운 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 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간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드물긴 하지만 사람 감염 해외 사례도 2021년 12월 이후 8건이 보고됐다. 대부

분의 인체 감염 사례는 오염된 환경에서 조류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고양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는 인체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길고양이 등은 많은 수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돼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체 감염 우려가 상황이다.

다만 아직 인체로 이어지는 'n차 전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학계에서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돌연변이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하지만 철새나 텃새 등을 통한 길고양이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변이 바이러스 출몰이나 인체 전염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한우자조금·카카오 '소프라이즈' 출시 한우자조금과 카카오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우, 일리 있는 선택'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한우자조금과 카카오는 온라인 한우 소비 확대를 위해 카카오톡에서 선물·쇼핑이 가능한 '소프라이즈' 감탄한우 기획상품을 출시했다. 신대현 기자 holjjak@

5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인구 43개월째 감소

바닥없는 인구절벽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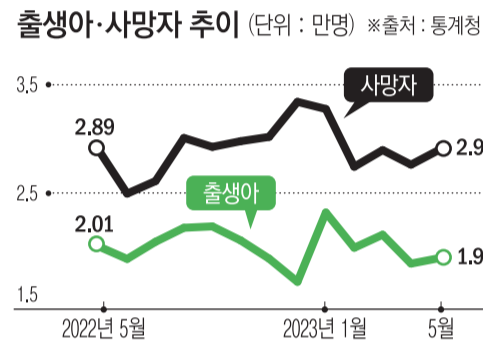
출생아 1만9천명... 90개월째 감소 사망자 수 2만9천... 동월기준 최다 서울·부산 출생 줄고 대전 등 늘어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면서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전년대비 9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 8988명으로 1년 전보다 1069명(5.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9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달(1만 8484명) 대비로는 출생아가 504명 늘었다.

5월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4.4명)도 5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여성의 출산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5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대전, 울산, 충북 등 3곳은 출생아 수가 증가한 반면 서울,



5월 인구동향 (단위: 명) ※ () 전년대비 증감률

출생아	1만8988 (-5.3%)
사망	2만8958 (0.2%)
인구자연감소	-9970
혼인	1만7212 (1.0%)
이혼	8393 (0.3%)

부산, 대구 등 14곳은 감소했다. 이처럼 매달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실질적인 저출산 해소 정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반기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정책의견수렴 정책간담회에서 “그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하고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 8958명으로 전년대비 50명

(0.2%) 증가한 5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전보다 사망자 수가 늘었지만 3만 명 아래로 내려간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2만 명대를 유지했다.

고령층에게 건강 위험 요인이 된 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사망자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광주 등 7개 시도에서 사망자가 늘었고, 대구 등 10개 시도는 감소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9970명을 기록하면서 43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자연감소했다.

5월 혼인 건수는 1만 7212건으로 전년대비 1.0% 늘었고, 이혼 건수는 8393건으로 0.3% 증가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한덕수 총리〉 韓 “물관리 일원화 유지”... 내일 재난대응 논의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관리 체계를 작년 1월, 전 정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환경부로 간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검토한다든지 하천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서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 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감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이 있어 감찰 중간에도 수사 요청하고 있는 상당히 특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재난대응 전면 재 정비 지시와 관련 “이번 주 금요일(2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번 정도 점검회의를 하고 7번 정도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서 저와 통화도 하고 계속 지시를 했는데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공정위, 방송사 상대 ‘저작권 감질’ 음저협 고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저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2월부터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이용자에게 음악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후 정부(문화체육관광

과징금 3억 4천만원·시정명령 함저협과 경쟁체제 도입 했지만 무시한채 59개 방송사 독점징수 부)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2014년 9월 사단법인 함저협이 해당 시장에 신규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두 협회는 정부에서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방송사들로부터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나누어 징수하게 됐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를 무시한채 MBC, KBS 등 지상파방송 3사, 지역지상파 25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자신이 기준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

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임의로 과도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해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나아가 음저협은 자신이 과도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도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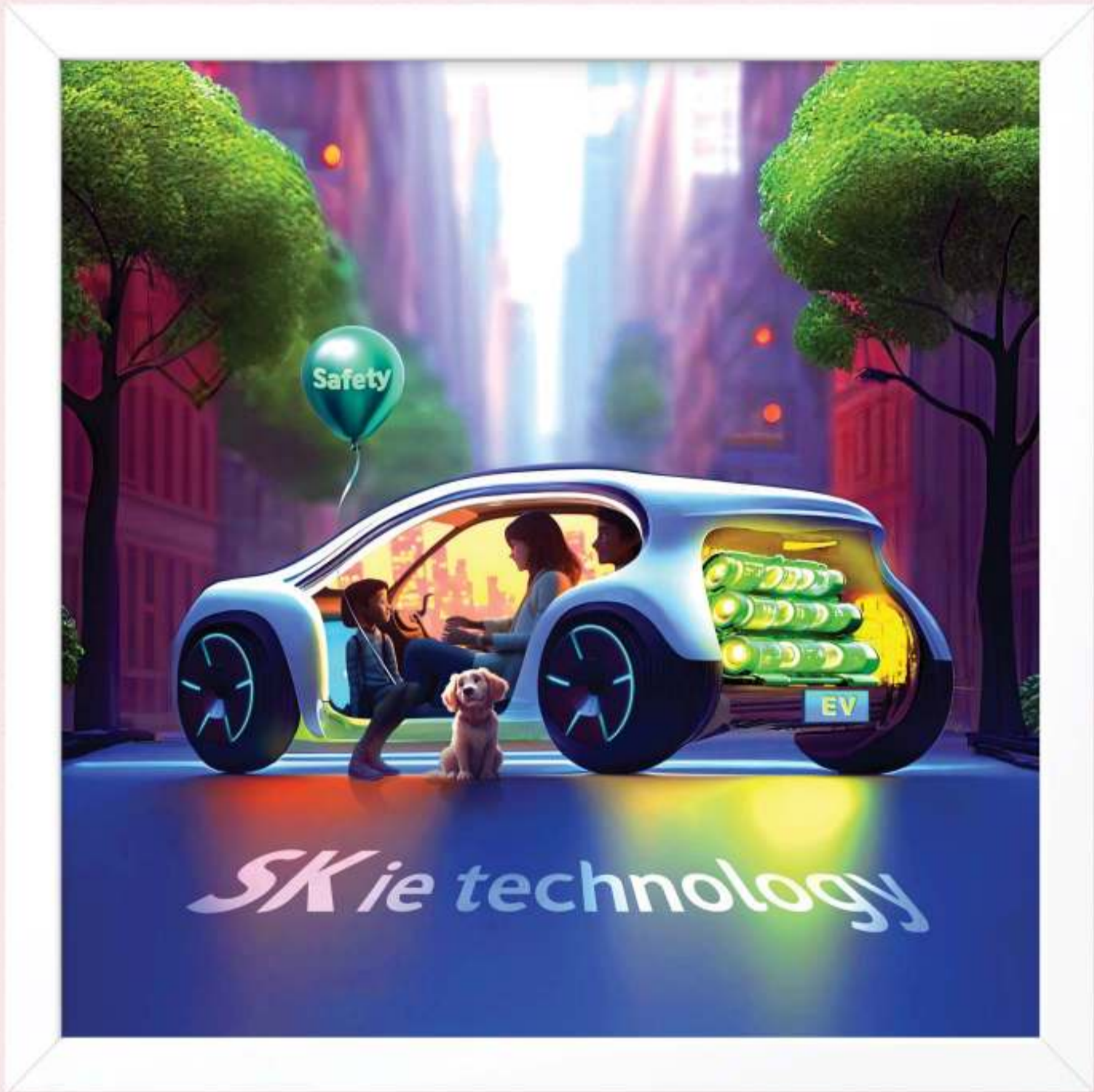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ie technology**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시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전기차 부품 핵심 기술 #배터리분리막 #안전함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명 **안전한 기술이 타고 있어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CES*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배터리 분리막 기술력이
전 세계 전기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그린픽처**

각국 제조업 '보조금 전쟁'... 동맹 위협하는 '제로섬 게임'

바이든 행정부, IRA 등 파격조치 "美에 공장 뺏길라"... 예산 쏟아 EU·캐나다 등 잇따라 출혈경쟁 전문가 "경제적 왜곡 증가 우려"

중국의 패권 전쟁에 몰두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 전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국내 제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에 유럽과 캐나다 등 미국 동맹국도 보조금 전쟁에 뛰어들면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제로섬게임'에 놓이게 됐다.

동맹을 긴장시키고 예산을 위태롭게 하며 전례 없는 규모의 공적 현금을 민간기업에 투입하는 글로벌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

최근 1년간 전 세계에서 발표된 보조금 정책 (단위: 억달러)

배터리		
국가	액수	부문
캐나다	213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공장
영국	6.4	타타 재규어 공장
독일	11	노스볼트 공장
프랑스	17	프롤로지움테크놀로지 공장
미국	306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금 공제

* 출처: 블룸버그통신

반도체		
국가	액수	부문
EU	479	반도체법, 제조업 지원
독일	111	인텔 공장
일본	68	TSMC 공장, 기타
인도	100	신공장 투자
프랑스	32	글로벌 파운드리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공장
미국	520	반도체지원법

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첨단 반도체 공장에 200억 유로(약 28조 원) 상당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조금은 2027년까지 독일과 다국적 기업에 분배되며 기후변화기금(KTF)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1800억 유로 규모의 KTF는 애초 탈탄소 정책을 위해 설립됐지만, 정부가 보조금 지출 등을 위해 사용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조금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영국 정부는

인도 타타그룹에 5억 파운드(약 8228억 원)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다.

현재 타타그룹은 영국계 브랜드 재규어·랜드로버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이들 차량에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번 투자는 영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주 430억 유로 상당의 반도체법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미 미국 IRA에 '그린딜'이라는 맞불을 냈던 EU는 역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패배자들도 나오고 있다. 스페인은 타타의 재규어·랜드로버 공장 유치 경쟁에서 영국에 밀렸고 테슬라로부터 발렌시아 공장 건설을 거부당했다.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54억 달러 상당의 지원책을 내놨지만, 자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막진 못했다.

캐나다에선 보조금 지원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공장을 짓기로 했던 스텔란티스가 돌연 미국으로 터를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크라이슬러와 지프 브랜드를 소유한 스텔란티스는 IRA 수준의 지원을 요구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0억 캐나다달러 수준이던 지원금을 이달 국가역사상 최대 규모인 150억 캐나다달러(약 15조 원)까지 늘렸다. 해당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캐나다 정부에 감사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 세계 각국은 향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협상단에 몸담았던 스티븐 울슨 헨리치 재단 선임 연구원은 "글로벌 보조금 전쟁은 결국 상당한 규모의 낭비와 경제적 왜곡 증가, 불확실한 일련의 최종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떠밀려온 돌고래 구하는 호주 시민들. 호주 남서부 체인스 해변에서 26일 시민들이 암초에 걸린 돌고래들을 구출하고 있다. 이 해변에서 돌고래 일종인 참거두고래 약 100마리가 뿔뿔하게 떼 지어 채 떠밀려 왔는데 그중 절반 가량이 죽었다. (체인스(호주)/AFP연합뉴스)

〈中 외교부장〉 사라진 친강... 바이든 발언이 원인?

중정부 절대권위 보이려 했으나 바이든, 시진핑에 "독재자" 발언 "왕이 복귀에도 혼란 지속될 듯"

중국이 한 달째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친강(사진) 외교부장을 면직 처리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다시 외교부장 자리에 복귀시키면서 외교가 안팎에서 무성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면직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은 26일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시진핑은 독재자'라는 폭탄발언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친 전 부장은 중국 '전랑외교(늑대 외교)'의 상징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다. 올해 3월에는 부총리급인 국무위원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약 7개월간의 임기를 끝으로 전날 밤 면직 처리되면서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후 최단기 외교부



장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중국 당국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았던 만큼 외교가에서는 건강 이상설, 불륜설, 부패문제, 다른 파벌과의 권력투쟁설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닷케이는 친강을 둘러싼 여러 해석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공산당 인사시스템에서는 승진 시 엄격한 사전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며 부정부패와 불륜 등 심각한 사생활 문제가 있었다면 오래 전에 상부에 보고돼 외교부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닷케이는 봤다.

그러면서 한 달 전 미·중 관계를 둘러싼 이슈에 주목했다.

친강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만났을 때 중국 측은 시 주석 이상

석에 앉고 블링컨 장관과 미국 정부 관료들은 중국 측 인사들과 마주 보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닛케이는 "과거 '책봉 체제'에서 황제가 조공국 신하를 만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자리 배치였다"며 "중국은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진핑의 절대적 권위를 국민에게 보여 주려 했다"고 풀이했다.

여기에 바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이든이었다. 블링컨이 방종을 마치고 중국을 떠났을 무렵인 지난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정찰 풍선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시 주석을 '독재자'로 칭한 것이다.

닛케이는 "중국에서 시진핑의 절대적 권위는 미국 대통령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되고 있다"며 "바이든의 통제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오게 된 책임을 친강이 져야 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정치국 위원인 왕이가 앞으로 4~5년간 외교부장을 계속 맡을 수는 없다"며 "중국의 외교적 혼란이 지속될 것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기대 밑돈 MS, 선방한 구글 실적 호조에도 엇갈린 희비

MS, 시간 외 거래서 주가 3% 폭 알파벳, 6분기 만에 첫 순익 증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자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어닝서프라이즈'를 연출했지만, 시장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는 이날 장 마감 후 2분기(2023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561억9000만 달러(약 72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레피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54억7000만 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200억8000만 달러였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이었으나 MS가 제시한 실적 가이드(선제 안내)가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다. 에이미 후드 MS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애널리스트와의 컨퍼런스콜에서 3분기 매출이 538억~54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레피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549억4000만 달러였

다. 이어파로 MS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 넘게 하락했다.

반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뛰었다. 알파벳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746억400만 달러, 순이익은 15% 증가한 183억680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건 6분기 만에 처음이다.

구글 검색 엔진의 광고 사업과 클라우드 부문이 실적 호조를 뒷받쳤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력인 인터넷 광고 매출이 3.3% 증가한 581억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8% 증가한 80억3000만 달러, 유튜브 광고는 4% 늘어난 76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MS는 기대를 밑도는 실적 가이드로 AI 기반의 신제품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애플 미첼 울프 인사이더인텔리전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구글은 유튜브와 검색의 완만한 성장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방어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 강타... 5년 내 가파른 조정 예고"

대서양 해류 순환 붕괴 조짐

▶1면서 계속

AMOC는 한 번 바뀌면 돌이킬 수 없는 지구의 중요한 하위 시스템으로 여겨져 왔다. CNN은 "AMOC의 붕괴는 지구 날씨에 재앙이 될 것이며,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AMOC 순환 기능이 멈춰 서면 유럽과 북미 지역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고, 반대로 미국 동해안을 따라 해수면을 상승시켜 전 세계에 물을 공급하는 몬순 주기를 교란할 수 있다. 2004년 개봉한 재



난 영화 '투모로우'가 바로 AMOC의 붕괴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왔다는 설정을 배경으로 했다.

이런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시장과 경제를 강타할 차기 메가 쇼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시장이 5년 내 기후변화로 가

파른 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텀하우스는 "기후변화로 식량 인플레이션, 에볼라바이러스와 엡스(원숭이두창) 등 전염병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 미국 마이애미와 중국 상하이 등 기후변화 취약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관련 산업 붕괴 등 온갖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온 버틀러 채텀하우스 글로벌 경제·금융 프로그램 책임자는 "현재 시장은 기후 위험에 평정심을 보이지만, 가파른 조정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조정이 더 오래 지연될수록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닥 다진 전자 부품업계... “3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자 부품사 2분기 성적표

주요 전자 부품사가 올해 2분기 어두운 경영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하반기 영업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김성현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6일 열린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악의 시장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3분기에는 1·2분기보다 실적 개선 폭이 훨씬 더 크고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2분기 매출 4조 7386억 원, 영업손실 8815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LGD, 5개 분기 연속 적자에도

전분기비 매출·영업손실 개선

수주형·소형OLED 사업 기대

삼성전기 전년비 역성장했지만

하반기 고부가 부품수요 본격화

LG이노텍도 전장·카메라 확대

15.5% 감소했다. 영업손실폭은 지난해 1분기 4883억 원보다 커졌다. 그러나 전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7%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1280억 원 축소됐다.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수주형 사업’과 ‘소형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물동과가격을안정적으로운영해나갈 수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수주형 사업의 전사 매출 비중은 올해 40%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내년에 수주형 사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향후 2~3년 이내에 7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및 중소형 전 제품군에서 OLED 비중과 사업 경쟁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OLED의 전사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CFO는 “올해 상반기 OLED와 대형 LCD를 중심으로 오토 디스플레이 수주가 4조 원을 기록해 수주잔고는 20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장 큰 부분은 캐파(생산능

력)를 증설하고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소형 패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2조2205억 원, 20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43%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46% 증가했다.

삼성전기는 “하반기 스마트폰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와 주요 부품재고 축소, 전장용 시장 성장세로 관련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기는 고사양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와 플래그십용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제품과 전장·서버 제품 비중을 높여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2분기 전방 IT 수요 약세가 지속돼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

기, 올해 1분기보다 줄었지만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LG이노텍은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3조9072억 원, 18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93.7%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영업이익은 87.4% 줄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2분기 수익성이 감소했으나 스마트폰용 고부가 카메라 모듈 공급비중 증가, 차량 조영모듈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등 전기차용 파워 부품 공급 확대로 매출은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고객사 신모델용 부품 공급이 본격화하며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효진 기자 js62@

연간 목표 높인 현대차 “하반기 더 기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

신차 출시·우호적 환율 시너지
매출 증가율 3.5%p 상향 조정
7%대 영업이익률 8~9%로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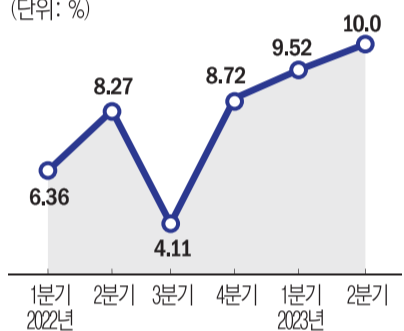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뽐내던 현대자동차가 올해 연간 경영목표를 상향 재조정했다. 판매 목표를 애초 계획했던 432만 대를 유지한 반면, 매출 증가율을 이전보다 3.5% 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7%대 영업이익률 역시 8~9%로 업데이트했다.

26일 현대차는 2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판매 목표를 넘어선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시장전망 등을 고려해 연간 가이던스(전망치)를 업데이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의 보수적 전망 속에서도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이날 서강현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부사장)은 컨콜을 통해 “예상보다 높은 산업 수요를 비롯해 반도체 수급 확대에 따른 생산 정상화로 올해 초 제시했던 연간 판매 432만 대를 하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영업이익률



올해 초와 비교해 전체 판매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지속적 평균판매가격(ASP) 상승과 제품다양화·제품 판매 지역 확대·우호적 환율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매출액 성장률을 연초보다 3.5%포인트 높은 14~15% 수준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차와 SUV 중심의 판매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영업이익률도 기존보다 1.5% 포인트 상향한 8~9%로 업데이트했다.

이날 현대차는 2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이 기간 글로벌 판매가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출 42조2497억 원, 영업이익 4조2379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4%, 영업이익은 무려 42.2%나

증가한 규모다. 역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비율도 역대 최대 수준인 10%를 달성에 성공했다.

하반기 전망은 더 긍정적이다. 올해 초부터 제기된 경기침체 우려와는 달리 실제 판매현장에서는 꾸준한 대기수요 덕에 판매가 쉽없이 이어졌다. 특히 2분기 판매는 더 좋았다.

매출 증가도 뚜렷한 판매증가 덕이었다. 영업이익의 경우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과 우호적 환율 효과 등을 톡톡히 누렸다.

이날 서강현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한 침체를 예상하는 시점이 작년 말부터 있었다. 당장도 대비를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시점이 올해 초부터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 판매에서도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제네시스와 SUV, 주력 신차의 출시 등 다양한 제품 믹스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2분기 배당액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1500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장영호(오른쪽) CJ대한통운 IFS본부장과 김백재 국제항공운송협회 한국지사장이 의약품 항공운송 국제 인증인 ‘CEIV Pharma’를 획득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278兆’ 의약품 물류 도전

국제표준 의약품 항공운송 인증

CJ대한통운은 의약품 항공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인증 CEIV Pharma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CEIV Pharma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공인하는 것으로 운송 과정의 섬세한 온도 관리,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 280여 개 항목을 까다롭게 평가한다.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은 상온·냉장·냉동 등 적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콜드체인(Cold Chain·저온 유통)’이 필수다. 변질되거나 오배송할 경우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일반 화물보다 취급 난이도도 높다. 국제기구 인증을 받은 물류기업이 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인증 획득은 향후 글로벌 의약품 물류 시장에서의 우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자체 온도 관제 시스템인 ‘쿨가디언(Cool Guardian)’을 갖추고 있다. 또 인천공항 제2공항공물류단지 내 5800㎡ 규모의 의약품 전용 물류센터도 마련했다.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부합하는 전국 12개의 제약센터와 의약품 전담 차량 200여 대를 운영 중이다.

의약품 항공 운송 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6%의 성장했다. 2030년 글로벌 의약품 물류 시장은 1958억 달러(27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장영호 CJ대한통운 IFS본부장은 “신사업 추진 중인 제약 물류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SK온, 국내 최대 배터리 안전성평가센터... “극한 시험 가능”

안전성 평가 분야 ‘원스톱 솔루션’

SK온은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에 ‘SK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최대인 연면적 3392㎡(약 1026평)의 규모를 갖췄다. SK온은 센터를 통해 안전성 품질평가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키우고, 고객의 품질 요구에도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는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단일 시설 안에 안전성 평가 분야 ‘원스톱 솔루션’ 기능을 갖췄다. 다양한 안전성 검증 시험, 컴퓨터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에 개소한 SK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사진제공 SK온

단층촬영(CT) 장비를 활용해 배터리 상태나 발화 원인 등을 파악하는 비파괴분석, 배터리 해체를 통한 구조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심층 분석을 거쳐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단계까지 단번에 이뤄진다.

SK온은 현재 주요한 시험 설비들을 센터에 반입 중이다. 10월까지 모든 설비를 갖춘 뒤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랙 등을 다양한 시나리오별 안전성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SK온은 배터리가 통상 견딜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일명 ‘악의 시험’도 상시 진행할 방침이다.

서형권 SK온 품질보증담당은 “SK온은 국내 최고 수준의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설을 갖추게 됐다”며 “일반적 안전성 범위를 뛰어넘는 다수 시험을 독자 수행하고 연구해 SK온만의 품질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포스코퓨처엠-우리銀, 금융지원 MOU

포스코퓨처엠이 우리은행과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하며 이차전지 양·음극재 사업 투자에 속도를 낸다.

포스코퓨처엠은 26일 우리은행과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은 우리은행

으로부터 양·음극재 사업 시설투자자와 해외사업 진출 등의 목적으로 3년간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포스코퓨처엠은 안정적인 투자자금 조달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외 시설 투자를 확대해 친환경 미래 소재 선도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묵이고 떼이고... 속타는 코인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 이어 텔리오 출금 중단 사태 원인·피해 규모 ‘묵묵부답’ FIU 제재도 제한... 책임론 제기 “소비자 보호에도 악영향 줄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텔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가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애를 태운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텔리오가 입출금 중단 사태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태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FIU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조건으로 고파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내걸었다. 2월 바이낸스 인수를 나섬에 따라 레온 싱 폰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총괄을 고팍스 등 가상대표이사 선임하고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출금 중단 타임라인

2022년	2월 16일	텔리오,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획득
	11월 16일	고파이 지급 지연 공지
2023년	2월 2일	레온싱 폰 바이낸스 아태 총괄 대표이사 선임
	3월 6일	고팍스, FIU에 변경 신고서 제출
	6월 14일	텔리오, 입출금 중단 공지
	7월 26일	고파이 지급 지연 원금 규모 566억원
		텔리오 피해 규모 미파악, 수백억 추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는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현재까지 결정을 연기하고 있다.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IU가 변경 신고를 연기하

면서 고파이에 묶인 원금 566억 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 예치 고객들의 자금이 인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변경 신고에 있어 결정 주체는 사실상 FIU가 아닌 은행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실명 계좌 계약 연장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FIU에서 위험 확인 여부를 물었을 때 확인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고파이 사태에 이어 만약에 바이낸스가 인수

하고 나서 문제가 또 발생하면 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현재 자금세탁을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텔리오사태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자자하다.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당국을 믿고 가상자산을 텔리오에 예치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텔리오는 FIU로부터 예치 운용업에 대한 자격을 받지 않았다. 사실상 텔리오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FIU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이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FIU 입장에서 텔리오 상대로 할 수 있는 제재 중 하나가 VASP 불수리인데 해당 방법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며 “오히려 시장 혼란이 더 발생할 수 있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한정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텔리오는 피해 규모나 반환 가능한 자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정 상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치 고객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추정되는 가운데 VAPS 자격 박탈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텔리오에게 얼마나 압박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FIU가 할 수 있는 제재가 텔리오 사태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FIU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에 국한된 제재를 가하기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 조합원들이 26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앞 광장에서 고용 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실적도 고용도 불안... 뿔났다, 카카오 노조

‘창업주 사과·책임경영 촉구’ 집회 구조조정 반대가 아닌 대화 요구

카카오 노동조합이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의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이 커지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사과와 책임 경영을 촉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카카오 노조는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규탄하고 고용안정성을 요구하기 위한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김 창업주에게 작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의 목적은 구조조정 반대도 아닌 고용 불안 해소다. 실제 카카오는 올해만 5번 근무행태를 변경하며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카카오 공동체 다수의 법인에서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회사분할 등이 추진되며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구조조정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있지 않다”며

“카카오페이 불복 및 사태,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매각 사태 등을 통해 우리가 바란 건 변화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카카오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카카오의 위기가 일시적인 재무 위기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두면 또 다시 제3의, 제4의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김 창업주가 자질이 부족한 백상엽 전 대표를 선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구조조정을 촉발했다고 지적하며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지회장은 “백상엽 대표는 김범수 센터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능력이나 상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직원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필터링만 진행되더라도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중고차 B2C’ 제동걸린 롯데렌탈... 상생안이 문제

기존업계 반발로 사업진출 지지부진 상생안 등 자율조정 합의면 즉시개시 플랫폼 등 준비 끝... 렌탈에 치중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렌탈업계에선 롯데렌탈의 중고차 진출이 점쳐졌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를 넘어 유보하기에 이르렀다.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자율조정 의견을 조율하는데 미진해서다. 하지만 롯데렌탈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진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다 끝낸 만큼 자율조정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라도 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롯데렌탈은 중고차 사업과 관련해 중고차 렌탈과 B2C 두 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B2C보다 중고차 렌탈 사업에 치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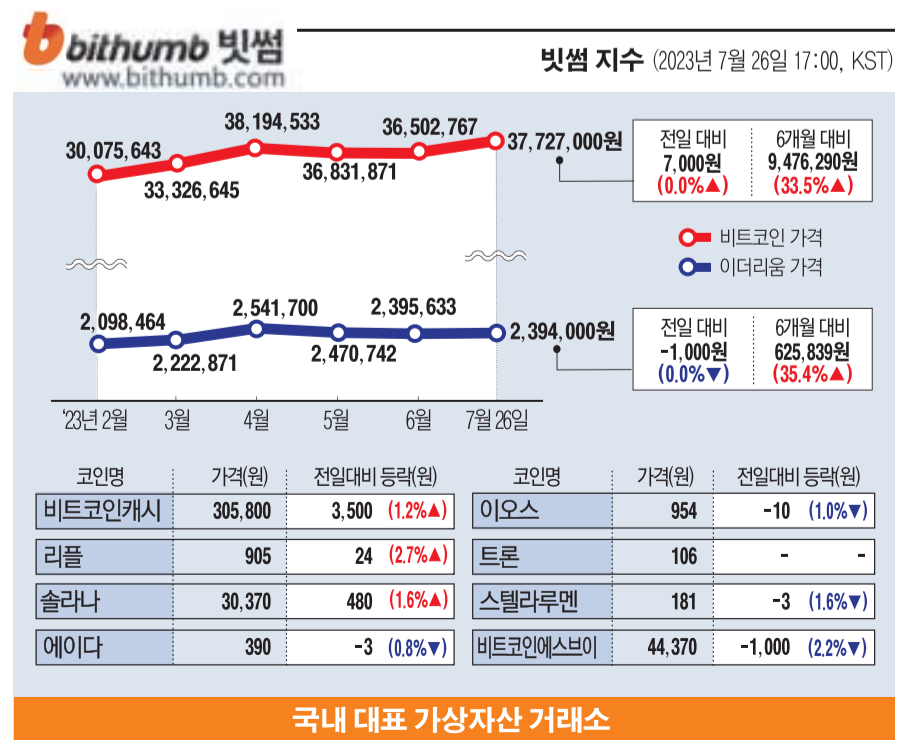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최진환(사진) 롯데렌탈 사장은 지난달 2023 CEO IR데이에서 “작년까지 준비해온 신사업인 중고차 B2C 진출을 잠시 유보한다”며 “제도적 합의는 됐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B2C 시장 진출이 차일피일 미뤄져 나온 판단으로 보인다.

롯데렌탈은 2021년 중고차 B2C 진출 선언 이후 중고차 업계의 사업조정 신청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작년 11월 양측이 상생안 마련을 통한 자율조정에 합의하면서 해결의 물결을 탔다. 롯데렌탈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 대표되는 중고차 업계를



만나 상생안 마련에 뜻을 모으면서 올해 2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4월까지 사업조정 이슈에 합의하고 5월 B2C 내수 플랫폼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두 연합회 중 한 곳이 상생안 합의에 제동을 걸면서 롯데렌탈의 중고차 B2C 진출 계획은 수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태가 됐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상생안을 마련해 자율조정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하고 중고차 업계도 동의했다는 의견을 내야 하는데, 연합회 중 한 곳의 입장이 대기업 진출에 모두 반대하는 등 경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B2C 사업과 관련한 플랫폼과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다 만들어 둔 상태에서 합의만 원만히 진행된다면 언제든 B2C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 중고차 렌탈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고, 기존의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활용해 (렌탈) 상품을 판매할지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롯데렌탈은 작년 기준 1만 4000대인 중고차 렌탈 보유대수를 2027년까지 연평균 51% 늘리고 침투율을 0.2%에서 2025년 0.6%, 2027년 1.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고차 렌탈 상품을 강화하고 판매 채널을 구축하며 인프라도 확보할 방침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휴가의 출발지가 휴식이라면 마음의 종착지는 이곳이겠죠

휴가에는
복잡한 계획도 불안한 예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고 편안하며
때로는 색다른 휴식

마음이 원하는 우리 농촌에서
힐링 휴양을 보내세요



오세훈 역점 '서울혁신파크' 개발, 시민단체 반대 '난항' 예고

(서울시장)

복합문화쇼핑몰·공공주택 조성
오 시장 "서북권 랜드마크" 공약
2025년 착공 2030년 마무리
은평구 일부 주민·입주 기업들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 진행"
개발 반대모임 출범 서명운동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개발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입주기업들과 지역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향후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업화 방안 수립'에 관한 본격적인 용역 발주를 앞두고 24일 사전규격(발주에 앞서 공개

하는 조달요청서)을 내놨다.

해당 과업내용서를 보면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수요 분석 등을 통한 적정 도입용도·규모를 산출한다. 또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제시, 관리운영 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실현방안도 마련한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일대에 총면적 11만471㎡ 규모로 조성됐다. 국립보건원이 이전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였던 2009년 서울시가 전격 매입했다. 이후 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시민단체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서울혁신파크를 세웠다. 여러 사회적 기업이 입주하고, 시민 사회를 위한 체험행사 프로그램 등도 활발히 진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이곳을

'서울혁신파크' 개발 계획 개요 ※ 출처: 서울시

위치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면적	11만471㎡
내용	- 특화업무공간 조성(15만㎡) -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조성 -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골드빌리지' 조성 - 60층 규모 복합문화쇼핑몰 조성



대규모 복합시설 등으로 조성해 서북권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50만㎡ 규모의 시설이 들어선다. 60층 높이의 건물과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대규모 복합문화쇼핑몰도 생긴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와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머무를 수 있는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골드빌리지' 등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5년 착공해 2030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개발을 반대하는 사회의 목소리도 커 향후 사업 진행에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기자가 서울혁신파크를 방문해 만난 관계자들과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와 은평구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이곳 기업들은 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서로 연대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임대료도 크게 감면해 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은 절거 소식에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많이 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0일에는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이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입주기업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개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도 그렇고 그러한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충분한 소통 없이 공공성이 짙은 공간을 단번에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민모임은 4월부터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만여 명의 반대 의견이 모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 초기여서 주민 의견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향후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피해예방 빠진 정부대책...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

#직장인 김모(31) 씨는 얼마 전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칫 전세사기를 당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전세를 얻으려고 찾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김씨가 원하는 것보다 비싼 신축 빌라를 보여주면서 이사비랑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계약을 유도했다.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더해졌다. 하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에 계약을 포기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씨를 사례를 들은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드러난 것들이 워낙 규모가 크고 부작용이 심하게 주목받았을 뿐이지 비슷한 일은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계속됐고 지금도

사회초년생 노린 의심사례 여전히 피해 구제·사건 적발에만 집중 계약과정서 도움될 방법은 없어 "근저당 파악, 의심되면 신고를"

전세사기에 연루되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도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년만큼 활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의 미숙함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작년 7월부터 1년간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국토부가 포착한 전세사기 의심거래는 1538건이고 1034명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 임대인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의심자 1000여 명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가깝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의심할만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기밀 곳이 없다는 점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나 정치권이 이전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지 전세사기 차단·근절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공인중개사 협회도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실상 개인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움직임이 피해자 구제와 이미 진행된 사건을 적발하는 데만 집중돼 있고 개인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시세는 물론이고 해당 물건의 근저당 등을 충분히 파악해보고 계약해야 한다"며 "만약 의심이 들면 계약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보규 기자 jbk@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1년 7개월 만에 50% 넘었다

6월 51.89%...세종도 52.29%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상승한 금액에 거래된 비중이 1년 7개월(19개월) 만에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전체의 51.89%로 집계됐다. 집값 상승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은 2021년 11월(52.85%) 이후 19개월 만이다.

거래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상승(대폭 상승)한 거래는 5월 540건에서 6월 697건으로 늘어 2021년 9월(893건)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은 32.24%로 19개월 만에 가장 비중이 작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곳은 세종(52.29%)으로 나타났다. 하락 거래 비중이 40% 이하를 기록한 지역은 세종(36.12%)과 경기(37.97%)였다.

직방 관계자는 "상승 거래 비중은 이달 들어 다시 줄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미분양 제로' 두산건설, 완판 행진 비결은

올들어 '워브' 단지 100% 계약 브랜드 강화·신기술 적용 효과

두산건설이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분양한 아파트를 모두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26일 두산건설은 '두산워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조감도>가 완판되면서 전국 'We've' 단지 계약이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3월 인천 동구 '인천 두산워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 서울 은평구 '새재역 두산워브트레지움'의 계약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달에는 안양 '평촌 두산워브 더프라임'과 부산 '두산워브더제니스 오션시티'가 100% 계약됐다.

두산건설은 인수 2년 차를 맞이한 경영진의 브랜드 강화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로 인수된 두산건설은 가장 먼저 브랜드 강화에 나섰다.

2001년에 탄생한 두산건설의 대표 브랜드인 We've는 여전히 인지도와 호감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두산



건설은 더욱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를 위해 올해 3월 골프단도 창단했다.

신기술·신공법 개발과 특히 취득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수건 살균기가 부착된 욕실 플랩장으로 '기능성이 개선된 욕실 플랩장'에 대한 특허와 신발장 하부 살균기인 '살균등이 부가된 센서LED 조명'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취득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강화된 브랜드 파워와 합리적 분양가, 특화 설계 등이 고객의 선택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협력사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시공품질이 높은 주거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두산건설

상생경영·사회공헌... ESG 선도하는 GS건설

문화예술·학교체육 지원 '커넥트' 이웃 함께하는 임직원 자원봉사 투명·윤리경영 시스템 정비도

GS건설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GS건설은 한국 ESG 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2년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에서 통합 등급 A(우수)를 획득하며 4년 연속 친환경 건설사로 인정받았다.

26일 GS건설은 지난해부터 '커넥트'란 이름으로 젊은 문화예술인과 학교체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넥트는 GS건설과 문화예술인, 관객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인데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기업의 가진 공간과 자원을 사회구성원과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시대 사회공헌활동으로 기획됐다. 작년 6월 GS건설 본사인 그랑서울에서 젊은 뮤지션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공연 '커넥트 콘서트', 7월 춘천시 열린시안 강촌에서 연극인 활동을 위한 아동극 공연 '커넥트 뮤지컬', 10월 청계천광장에서 음악공연 '커넥트 콘서트'를 진행했다.

GS건설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한 임직원 자원봉사와 사회공헌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층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정착을 위해 핵심 활동가치를 △지역사회 지원 △미래세대 자립 지원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GS건설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만이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GS건설 자이사랑나눔봉사단원들이 '꿈과 희망의 공부방' 프로젝트를 위해 가구를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 GS건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조직, 시스템, 제도,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ESG 시대에 상생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고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ESG 선도기업으로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절판 마케팅’ 못끝는 보험사... 금융당국 경고도 안통했다

소비자 보험 가입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 개선을 발표하면서 영업현장에서는 ‘절판 마케팅’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우려한 금감원은 단속에 나섰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한계점은 분명하다. 보험 가입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전자, 어린이, 무저해지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내주까지 보험상품 개정 관련 절판마케팅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상품의 절판마케팅 조짐이 소비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운전자·어린이보험 등 상품개선 금감원 단속에도 관련규제 없어 보험사에 ‘절판’ 현황제출 요구 업계 “예의주시...내부통제 필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지목하고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됐던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가입연령이 35세까지 확대됐던 어린이보험은 15세로 제한되면서 일명 ‘어른이보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납입만 완료하면 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10년 미만의 단기납 종신보험은 유지보너스 지급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보험상품 개선방안

-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 어린이보험**
가입연령 최대 15세 초과 댄 어린이보험 상품명 제한
-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과도한 유지보너스 제한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 금지

※ 개정시기: 즉시(기존 판매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

각 설계사들은 보유한 고객DB를 활용해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단종 소식을 알리거나 대면 접촉을 늘리는 등 영업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의 엄포에도 절판마케팅을 막지 못하는 당국의 한계점만 드러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금감원이 보험사에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모집조직에 상품 개정 여부, 개정내용 등을 전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 등을 이유로 절판마케팅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내부통제방안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절판마케팅을 자인해 제출하는 보험사가 어디 있겠냐는 반문이 업계에서 쏟아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소비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절판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현실”이라며 “보험사들의 내부통제와 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절판마케팅까지 단속하기는 특히 어렵다”며 “최근에는 보험사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일선 영업조직에 판매를 전부 위임하는 제판분리가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서지연 기자 sjy@

시중銀 전환 TF 첫발 내디뎠다... 대구은행 “틈새시장 발굴”

은행장 직속 ‘전환 추진팀’ 산하 출범 지주·은행 경영총괄이 공동 TF장 9월 인가 신청...10월 전환 가능할듯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달 신설한 ‘시중은행 전환 추진팀’ 산하에 은행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간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사이에서 경쟁력을 높일 ‘틈새 전략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이달 신설한 전담 조직 산하에 TF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FT 공동 의장은 천병규 DGB금융 그룹경영전략총괄 전무와 이은미 DGB대구

은행 경영기획본부장(상무) 이말이다. 공동 간사는 DGB대구은행 전략재무기획부장과 시중은행전환추진팀장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 은행뿐만 아니라 지주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시중은행 전환 이후 영업 전략 등을 전체 그룹 전략 방향과 맞게 조율해갈 예정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이달 은행장 직속으로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구성했다. 대구은행 측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구체적인 자본계획, 재무계획, 영업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추가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팀과 TF팀 모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인가 받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구은행의 전담조직과 TF에서는 5대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발

굴하기 위한 신상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전환 시 대구·경북이 아닌 타 지역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핀테크 제휴 상품 등 기존 5대 은행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신상품 구상 등을 논의, 계획할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자본계획, 재무계획, 영업정책, 상품 전략 등을 마련해 9월 중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이 은행업을 영위 중인 금융기관인 데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표명한 4월부터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들여다본 만큼 예비인가 절차를 건너뛸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대로 대구은행이 9월에 인가를 신청하고 예비인가 절차 없이 바로 본인가 절차를 밟는다면 금융당국의 심사 기간이 단축돼 이르면 10월에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할 지 대구은행 관계자와 논의 중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전례가 없는 만큼 근거가 되는 법률을 검토하고 시중은행 인가를 주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이유, 수도권 사업계획, 금산분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서류와 관련해 당국이 대구은행과 상의하고 있는 시점이고 대구은행이 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인가를) 신청하면 공식적으로 절차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은행법이나 금산법 등)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대구은행의 신청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하영 기자 haha@

“복잡한 모바일뱅킹 고령자 쉬운 모드로”

국내 18개 은행, 필요 기능만

국내은행 18곳의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이 쉽고 편리해진다. 디지털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모바일 및 인터넷 금융 거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26일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은행 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 모드’를 국내 18개 은행이 출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별도의 모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국내 18개 은행은 올해 6월 말 기준, ‘고령자 모드’ 출시를 모두 완료했고 금융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일반 모드나 고령자 모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고령자 모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모드에 비해 고령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했다. 예컨대 A은행은 일반 모드에서는 9가지 기능을 한 화면에 제공하지만, 고령자 모드에서는 △이체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고령자가 자주 사용하는 5가지 기능 위주로 화면을 구성하고 글자 크기도 키웠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용어는 직관적인 용어 또는 간결한 문장으로 바꿨다. 유하영 기자 haha@



김영석(왼쪽)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상본부장과 박종관(쑤카량 대표이사)가 26일 엔진오일 출장 교환서비스 파트너십 협약식을 체결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손보

여성운전자가 원하는 곳서 엔진오일 출장교환 서비스

한화손보·카량 업무 제휴

한화손해보험은 여의도 본사에서 방문형 차량 관리·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쑤카량과 여성운전자를 위한 ‘엔진오일 출장교환 서비스’ 제휴 협약식을 26일 체결했다.

양사는 손보업계 최초로 비교적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운전자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엔진오일을 교환해주는 출장 차량 관리 업무 제휴를 맺고, 엔진오일 교환 할인권(3만 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서지연 기자 sj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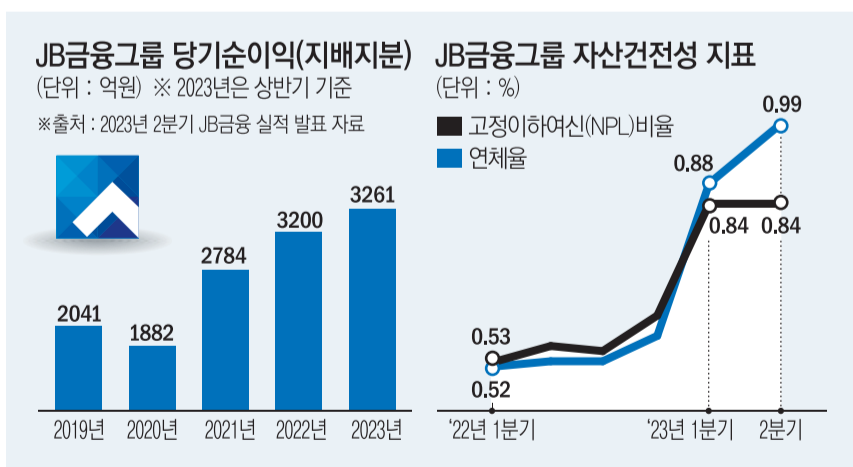
JB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3261억... ‘핀다’ 2대 주주에

리스크관리로 역대 최대실적 거둬 연체율 급증 등 자산건전성은 악화

JB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또 핀테크 기업 ‘핀다’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 위치에 올라선다.

26일 JB금융은 상반기 326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규모이자 역대 최대반기 실적이다. 2분기 기준 당기순익도 16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1조 252억 원을 기록했다. JB금융 측은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율성 개선으로 2분기 및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총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룹 및 은행 합산 원화대출금은 리스크관리를 전제로 한 내실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0.8%, 0.7%



증가했다. 은행합산 순이자마진(NIM)은 여수신 금리 변동 주기 차이때문에 리프라이징 효과로 전분기 대비 16bp 하락했다. 그룹NIM은 캐피탈마진을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11bp 하락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올해 2분기 연체율은 0.99%로, 직전 분기(0.88%) 대비 0.11%포인트(p) 뛰었다. 실질연체율은 1.18%로, 전분기 대비 0.20%p 상승했다. 그룹 연체율 상승에는 전북은행의 영향이 컸다.

JB금융은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향후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통주 한 주당 현금 120원씩 분기 배당을하기로 결의했다.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이며, 배당금 총액은 약 233억 원, 시가 배당률은 1.4% 수준이다. 또한, JB금융은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3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JB금융은 핀테크 기업인 핀다와 상호지분인수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JB금융은 핀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지분 15%를 약 450억 원에 취득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다. 유하영 기자 haha@

〈에코프로+코스닥〉

‘에코스닥’ 우려 현실화... 코스닥 하루새 70p 급등락

‘18%’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가총액)이다.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은 80조 원에 육박한다. 현대중공업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시가총액보다 크다.

증권가 안팎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커 ‘삼스피(삼성전자+코스피)’로 불리는 것처럼 코스닥 시장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2개 종목의 주가에 따라 출렁이는 ‘에코스닥’(에코프로+코스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6일 에코프로비엠(33.66%p)과 에코프로(31.17%p)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코스닥은 70.26포인트(장 중 최고가 956.4포인트, 최저가 886.14포인트)의 변동폭을 보였다. (본지 7월 24일자 14면 보도)

◇‘에코프로그룹주’ 시총80조 육박=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이날 시가총액은 45조 원을 기록했다. 기업 집단 기준 카카오그룹 시총(42조 원)과 현대중공업그룹(37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607조 원)·LG(241조 원)·SK(159조 원)·현대자동차(123조 원)·포스코(119조 원) 등 시총 ‘톱5’ 그룹과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에코프로(시가총액 33조 원)까지 더하면 80조 원에 이른다.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시

에코프로·프로비엠 쏠림 심각

7월 외국인 2.1兆 순매수세에 주가 급등... 시총 80兆 육박해

팬데믹에 쌓였던 가계 여윌돈 이차전자·대형주 몰리며 ‘과열’

개인 중심 차익매물 쏟아지며 코스닥 일거래 26.2兆 신기록

장에서도 상위 9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다. 포스코퓨처엠(43조 원), 현대차(42조 원), 기아(33조 원) 등보다 덩치가 크다. 에코프로는 NAVER(32조 원), 현대모비스(22조 원)를 제치고 코스피 시장 13위를 기록 중이다. 에코프로는 지난 18일 주당 100만 원을 넘어서며 16년 만에 코스닥 시장 ‘황제주’에 오르기도 했다.

에코프로형제주의 거침없는 상승세 뒤에는 외국인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7월 들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8734억 원어치 사들였다. 에코프로 주식도 1조2204억 원 순매수했다.

◇지나친 ‘과열’은 부메랑으로=그러나 최근 900선을 기쁘하게 뚫었던 코스닥 시장에서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이차전자



코스피가 2590대에서 거래를 마친 2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7% 하락한 2592.36으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4.18% 급락한 900.63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하루 70.26포인트의 변동을 보인 코스닥시장에서는 역대 최대인 26조2028억 원 규모의 돈이 오갔다. 하루 주가 하락 종목도 역대 최대(1480개)를 기록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쏠림 현상 때문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차익매물(에코프로비엠 -2919억 원, 에코프로 -1517억 원)이 쏟아지며 역대 최고 거래량(26조2003억 원)을 기록했다. 지수는 하루동안 70.26포인트의 변동폭을 기록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자 밸류체인 강세가 다시 부각되면서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재발하고 있다”며 최근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급등 현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스피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달 들어 11.8% 상승했다”면서 “통상 지

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지수 상승을 시장 참여자들이 마냥 반가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여윌돈과 무관치않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이 전날 공개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2020~2022년) 가계부채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129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민간소비의 9.7~12.4% 수준이다.

이용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

나 팬데믹 이후 가계에 초과저축이 많이 남아 개인투자자의 영향이 커졌고 자산 가격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거래량 비중은 지난 4월의 고점을 넘어서 ‘과열 국면’이라고 경고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미들이 찾는 주식도 대형주였다.

7월 기준 코스닥150 거래대금이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달했다. 지난해 26%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코스닥150 거래대금 기준 금융투자 외 외국인 비중은 각각 지난해보다 1.8배, 2.0배 증가했다. 개인 거래대금은 2.3배(5조7000억 원→13조1000억 원)나 늘었다. 삼성증권이 ‘GK’(Garman-Klass) 변동성산출방식으로 60일간 코스닥 변동성을 연월화한 결과, 8.59%에 달했다. 코스피 중형주 5.76%, 소형주 5.24%보다 높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을 꿈꾸는 도박 개미들이 많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이날 코스닥지수는 4.18% 내린 900.63에 마감했다. 역대 최대 종목(1480개)이 떨어져 4%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며, 1.67% 하락한 2592.36으로 마감됐다. 정희인 기자 hihello@

퇴직연금 머니무브 차단... 신규납입·만기 분산한다

퇴직연금 관련 시장안정 간담회 DB 만기 중 71兆 12월에 몰려 과열경쟁 차단 규율체계도 확립

퇴직연금의 머니무브(자금이동)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퇴직연금 상품의 만기를 다양화하고, 신규납입도 분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고금리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확립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권역별 금융협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 저축은행)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 내 머니무브와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확정급여형(DB형) 신규 부담금을 38조3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25조6000억 원(66.7%)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DB 운용 적립금 190조8000억 원(올해 6월 말 기준) 가운데 71조4000억 원이 12월에 만기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납입금과 만기분이 연말에 쏠려 있어 머니무브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먼저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금융회사들은 12월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신규 납입하는 올해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 3조2000억 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인 7조7000억 원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등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금융회사(은행·보험·증

권)는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외에 1년 6개월 등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과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규율체계 확립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9월 중에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과당 경쟁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非)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등을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교보증권 조직개편 “디지털 혁신 가속”

경쟁력 강화 위해 효율성 개선 DT전략부·IPS본부 등 신설

교보증권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변화 혁신 및 사업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조직에 변화혁신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경영관리실 명칭을 변화혁신 지원실로 변경했다.

변화혁신지원실 산하에 기획부 명칭도 변화혁신지원부로 변경하고 변화혁신PMO파트와 경영관리파트를 별도 신설했다. 변화혁신PMO파트는 변화혁신 지원실 직속으로 조직에 대한 변화혁신과 사업구조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는 DT전략부를 신설했다. 미래 성장동력인 토코증권(STO), 마

이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을 전담한다. 이밖에 금융상품과 WM분야를 개편해 영업경쟁력에 주력했다.

기존 고객자산운용본부를 폐지하고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총괄하는 IPS(Investment Product & Service) 본부를 신설해 종합적으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들위해 IPS본부 산하에 상품설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영업지원까지 전담하는 상품개발부를 신설했다. 또한 금융상품감리파트를 소비자보호부(CCO)에서 준법감시본부로 이동해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도 했다.

WM 영업조직은 기존 총 5권역 체제를 본부장 중심으로 제1지역본부, 제2지역본부로 이원화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이끌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영업을 활성화 시키고 고객기반을 확대하고자 디지털마케팅파트를 신설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선택과 집중’ 국민연금... 건설·미디어·금융 털고, 철강 담았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보유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지분 가치가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증권 업종의 비중은 축소하고, 대규모 해외수주에 성공한 철강, 기계, 반도체주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94개, 주식평가액은 138조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124조6394억 원(284개사)보다 10.7% 증가한 수치다.

지분 5% 이상 보유종목 294개 가치 138兆... 1년 새 10.7% ↑ 동국제강·KG스틸 등 대거 편입

다만 올해 1분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307개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투자 기업 수는 줄인 반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 5% 이상 보유하고 있던 건설, 미디어, 증권, 금융 업종을 5% 이상 지분에서 제외했

다. 대표적 건설주인 HDC, 코오롱글로벌, SK오션플랜트 등이다. 금융업인 대신증권, 다우기술, 카카오페이와 엔터주도 분류되는 에스엠, JYP엔터테인먼트의 지분도 모두 줄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에스엠과 JYP엔터 지분을 각각 7.8%, 8.3%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철강 관련 상장사인 동국제강(5.39%), KG스틸(5.00%), 세아베스틸주(6.10%), 세아제강지주(6.06%) 등을 5% 이상 대량 지분 보유 종목 대열에 대거 편입시켰다.

반도체 부품 및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기업 투자도 확대했다. 최근 전문가들은 국내 수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업종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감산 효과와 재고 감소, 인공지능(AI) 관련 메모리 수요 증가 등이 맞물려 실적 회복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신규 편입한 반도체 관련 기업은 LX세미콘(7.22%), ISC(6.15%), 에스앤에스텍(6.31%), 하이파이프론(5.03%), 타이엠씨(7.58%)

등이다. SK하이닉스(8.17%→7.74%), 원익머티리얼즈(8.71%→7.60%)의 비중은 줄었다.

대형주 지분 평가액을 보면 POSCO 홀딩스가 최근 주가 상승으로 보유지분이 1년 전 8.72%에서 8.99%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삼성전자(8.69%→7.68%), 삼성SDI(8.54%→7.53%), 기아(8.46%→7.66%) 등은 감소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차전자 관련 기업인 LG화학(7.48%), 포스코퓨처엠(5.57%), 코스모신소재(5.12%) 등의 지분도 5% 넘게 보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5.01%)도 5% 이상 보유 지분 종목에 신규 편입됐다. 정희인 기자 hihello@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우리 아이들의 시원한 여름을 부탁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힘든 여름을 보내지 않도록
전국 369개 지역사회 아동센터의
★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금융그룹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하여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원형 전조등이 세모 LED로 진화 이젠 미래차 필수템



1 1950~60년대 미국 자동차의 전조등 규격은 지름 7인치 원으로 제한돼 다양한 디자인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1957년형 크라이슬러 300C. 2 1970년대 미국 수출형 벤츠 S-클래스와 3 같은 모델의 독일 내수형 버전. 미국 내 규제로 전조등 모양이 각각 원형과 사각형으로 차이가 있다. 4 최근 LED 기술의 발달로 여러 형태의 전조등과 주간주행등이 등장했다. 사진제공 스텔란티스미디어·다임러미디어·MB뮤지엄·현대차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1970년대 미국차는 유난히 못생긴 차들이 많았다. 차 뒤쪽에 미친 듯이 날개를 달았던 1960년대의 가벼움은 걷어냈으나, 1970년대 들어서는 네모 반듯한 차들만 가득했다.

물론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되기 이전이었다. 겉모습은 오로지 기능과 내구성에만 초점을 맞추던 때였다.

◇무조건 동그랗던 전조등 = 미국차 디자인이 단순했던 이유는 여러 부품을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전조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가 본격 대량 생산 체제에 접어들자 미국은 전조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규격을 맞췄다. 차 회사와 모델이 달라도 전조등은 똑같았다. 모양은 무조건 원형으로 크기는 지름 7인치(약 17.8cm)로

20세기 미국 전조등 규격화 단조로운 원형 디자인 피하려 스포츠카는 ‘팝업램프’ 장착 규제 걸린 1980년대 네모 바람

제한했다.

모든 차의 전조등이 동일한 장점은 확실했다. 전조등이 깨져도 미국 어디서나 같은 모양의 전조등을 쉽게 구해서 장착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부품 값도 낮았다.

다만 모든 자동차 전조등이 같은 크기의 동그란 원형이라서 멋스러움과 거리가 멀었다. 동그란 전조등 2개를 좌우로 연결해 장착하거나, 세로로 2개를 심어 넣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으나 큰 감흥을 주지 못했다.

◇미국 수출차도 원형 전조등 규제 = 미국에 수출되는 독일차도 규제를 피하지 못했다. 멀쩡한 네모 모양의 전조등을 견어내고 7인치 동그란 전조등을 심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자동차의 레

이아웃과 동그란 전조등이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실제로 1970년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는 독일에서는 멋있는 네모 전조등을 썼으나 미국 수출형은 동그란 전조등으로 바꿔 장착했다.

법적인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팝업’ 방식의 전조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평소에는 전조등을 감추고 다니다 램프를 켜면 차 안에서 동그란 전조등이 솟구쳐 오르는 형태다. 한때 기아가 영국 로터스에서 생산권을 얻어와 만들었던 ‘엘란(Elan)’도 이런 형태의 팝업 헤드램프를 썼었다.

1980년대 들어 전조등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자 미국 차 회사는 감춰왔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기 시작했다. 포드의 고급차 버전인 머큐리는 고급차 세이블을 개발하면서 요즘도 보기 힘든 좌우 일체형 전조등을 내놓기도 했다.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아 세이블’로 팔린 바 있다.

◇낮에는 네모, 밤에는 세모 = 21세기 들어 자동차 전조등은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계기는 LED 기술의 발

LED 소비전력, 일반전구 30% 못 넘어 친환경 부품으로 부상 수명 길고 다양한 디자인 가능 과거 없던 ‘세모·띠’ 모양 등장

달이다.

초기 LED는 광량이 부족해 자동차의 전조등보다 주간주행등 역할에 국한됐다. 이후 기술 발달이 거듭되면서 할로겐 전구보다 높은 광량을 확보한 LED는 자동차의 다양한 곳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작은 공간에서 높은 광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다. 작은 LED가 모여 차체 디자인이 되고, 커다란 레이아웃을 만들었다.

동시에 조명으로 하나의 디자인을 일궈내는 ‘라이팅 아키텍처’도 등장했다. 낮에는 네모로 보였던 후미등이 어두운 밤에 LED 램프를 켜면 세모로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 푸조와 르노가 이런 디자인을

앞세웠고, 미국차 가운데 GM의 고급차 브랜드 캐딜락이 과감하게 LED 램프로 디자인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 역시 LED 기술을 통해 과감한 디자인을 뽑아내기도 했다.

◇LED, 전기차 시대 필수 = LED 램프는 광학 구조와 렌즈 기술, 방열시스템, ECU 모듈, 반도체 소자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이 집약된 첨단 부품이다.

단순하게 디자인을 넘어서 미래자동차용 친환경 조명 광원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먼저 높은 열을 내는 일반 전구보다 전력 소모가 30% 수준에 불과하다. 수명도 10배 이상 길어 LED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소모품이던 기존 헤드램프와 달리 수명이 반영구적인 셈이다.

전력 소모가 적다는 것은 전기차 시대에서 1회 충전으로 더 많은 주행거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기 산업 수요가 적어 가격이 만만치 않았으나 이제 일반 전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도 낮아졌다. LED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junior@

삼성전자가 예언한 車 램프 디자인... 놀랍게도 대부분 상용화

2009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16가지 유망 기술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이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놀랍게도 10여 년이 지난 2023년 현재, 이 16가지 유망 기술 대부분이 이미 상용화됐거나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대표 미래 기술 가운데 하나가 LED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심리스(Seamless)’ 기술이다.

심리스란 선과 선, 또는 기능과 기능이 만나는 뚜렷한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거나 애초부터 걷어내는 기술이다. 예컨대 2G 이동전화의 경우 휴대전화 화면과 버튼 공간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버튼도 10진법에 따라 0~9까지 숫자가



8세대 쏘나타 전조등 디자인. 주간주행등이 크롬 장식과 하나인 듯 합쳐져 있다.

나열돼 있다.

반면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화면에 담긴다. 스마트폰은 기능과 기능의 경계가 허물어진, 물리적인 경계선을 벗어난 심리스 기술이다.

자동차에도 LED 기술을 바탕으로 심리스 디자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쏘나타, 크롬장식에 주간등 합쳐 LED와 차체 하나인 듯 디자인 14년전 심리스 확대 전망 현실로

차체 디자인은 동일하되 그 안에 LED 램프를 심어 넣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방식이다. LED 빛이 자연스

레 등장하기도, 또는 없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전조등과 차체가 뚜렷하게 나뉘었던 이전과 달리, 최근 등장하는 신차는 전조등에서 시작한 LED 빛이 차체를 파고들거나 가로지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뚜렷한 LED 빛이 차체를 깊숙이 파고든 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른



사진제공 현대차

바 ‘페이드 아웃’ 효과까지 구현하고 있다.

대표 모델이 2019년 등장한 현대차의 8세대 쏘나타(DN8)다. 출시 당시 전작(LF쏘나타)보다 크게 변화된 파격적 디자인에 큰 관심이 쏠렸다. 특히 ‘히든 라이팅’ 기술이 스며든 주간주행등에 관심이 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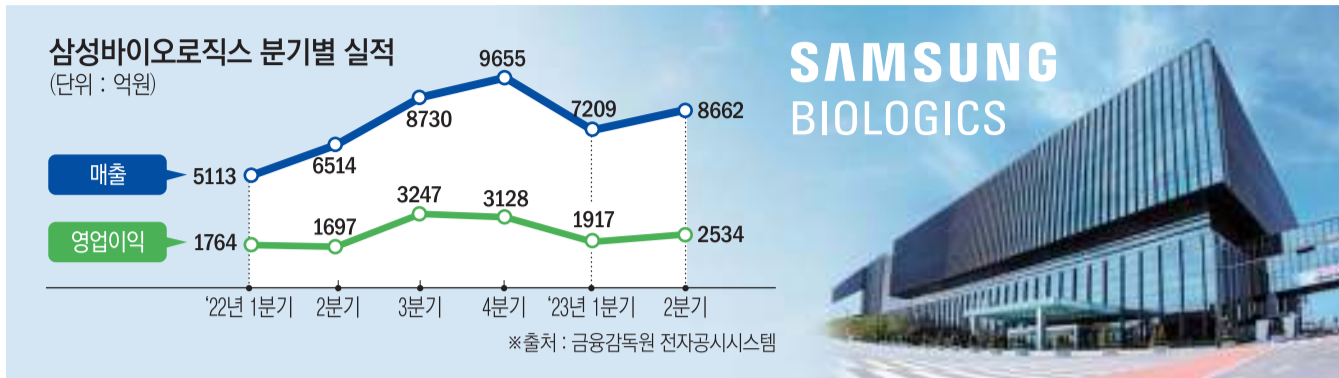
8세대 쏘나타의 주간주행등은 램프를 켜지 않으면 단순하게 크롬 장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램프를 켜면 이 크롬 라인에서 LED가 빛을 낸다. 단순하게 LED 빛을 내는 게 아닌, 빛이 자연스레 차체 속으로 스며드는 이른바 ‘페이드 아웃’ 효과까지 냈다.

10여 년 전, 삼성전자가 예언했던 심리스 기술이 자동차 디자인까지 스며든 대표 사례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바, 매출 1.6조 '사상 최대'... 'JY 바이오 드림' 영근다

올해 상반기 영업익 4452억원
글로벌 제약사 13곳 고객 확보
2020년 이후 누적수주액 7조원
5공장 완공 2025년 4월로 단축
생산능력 키워 위탁생산 수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거침없는 상승세에 바이오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목표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871억 원, 영업이익 4452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36%, 29% 증가한 규모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반기 별도 기준 매출은 1조2282억 원, 영업이익 4885억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영업이익이 2541억 원을, 영업이익률 약 40%를 달성했다. 대규모 수주와 1~3공장 완전(Full) 가동에 따른 효율 극대화에 따른 결과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반기 실적은 매출 4693억 원, 영업이익 7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로슈·화이자·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파마와 잇따라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 올해 수주액이 이미 2조3387억 원(공시 기준)에 달한

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이미 뛰어넘은 규모다. 글로벌 20대 제약사 가운데 13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질적 성장도 이뤘다. 본격적으로 빅파마 수주에 돌입한 2020년 이후 누적 수주액은 7조 원이 넘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들은 첫 계약 이후 계약 제품을 늘리거나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대부분의 위탁생산은 6~7년의 장기 계약"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초격차를 낳은 생산능력은 선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건설 중인 5공장의 완공 시점을 2025년 4월로 당겨 글로벌 위탁생산 수요를 한발 앞서 끌어들이 계획이다. 5공장이 완공되면 총 생산능력은 78만4000리터(L)까지 늘어난다. 이에 더해 △업계 철반 수준의 기술이전 기간 △첨단 세포배양 기술로 생산 기간 단축 △최단 기간 GMP

인증 등 차별점으로 글로벌 CDMO 업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다졌다.

바이오사업은 삼성의 대표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 회장은 올해 5월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대동한 미국 출장에서 "반도체 성공 DNA를 바이오 신화로 이어가자"라고 당부할 만큼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존립 사장은 이 회장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 아래 글로벌 세일즈 현장에 직접 뛰어든 '현장 경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기록 행진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4공장은 현재까지 10개 고객사와 16개 제품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미국에 출시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하드림'은 이달 미국 처방약급 여관리업체(PBM) 목록에 등재돼 경쟁 우위를 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점주 "마진 안 나온다"·고객 "상차림비 별도"

'기피대상' 된 치킨 기프티콘... 가맹본사는 '뒷짐'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서울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기프티콘으로 매장에서 식사를 하려면 '홀 이용비' 200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00원을 추가 결제했는데, 영수증에 '배달수수료'로 찍혀 있었다. A 씨는 "카페에서 커피 기프티콘을 써도 괜찮는데, 왜 유독 치킨 프랜차이즈만 기프티콘을 홀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기프티콘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코로나 전인 2019년 174건에서 2021년 432건으로 2년 만에 2.5배 늘었다. 지난해는 307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특히 비대면 영향에 판매량이 폭증한 치킨 기프티콘은 매장 이용에 제약이 많다는 불만이 다수다. 온라인에는 기프티콘으로 매장 내 취식을 하려다가 거부당했거나, 별도 '상차림비'를 요구 받았다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누리꾼 B 씨는 "BBQ 카카오키프티콘으로 매장에서 먹을 때 추가요금 내신 분들 있냐"며 "선물 받은 쿠폰을 왜

고객 "음식 결제해도 홀비 별도" 점주 "수수료 6~10% 홀로 부담" 본부 "홀비 부과는 점주 측 책임"

자꾸 배달·포장 전용이라고(점주가) 우기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C 씨는 "bhc를 가니 계산대 앞에 '상품권 결제, 앱 결제는 홀비 따로 추가됩니다'라고 써 있었다"는 글을 남겼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기프티콘의 경우 상품 설명에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 요금 발생을 명시했다고 설명한다. 상품 판매 시 관련 내용을 알렸으니 문제 될 건 없다는 주장이다.

A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매장마다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사이드 메뉴는 배달과 홀 제품의 크기 차이도 있어, 현장 혼란을 고려해 기프티콘을 포장·배달 전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기프티콘이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됐지만 홀 이용을 제한하지 말라고 점주들에 요청하고 있다"며 "일부 점주들이 이를 듣지 않는다"며 점주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기프티콘은 현금이나 일반 카드 결제보다 통상 수수료율이 높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점주 부담 수수료는 판매가의 6~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는 "다른 업종은 기프티콘 수수료를 본사가 함께 부담하는데, 치킨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점주 홀로 감당한다"며 "수수료 때문에 가뜩이나 마진도 적는데, 홀 이용을 하면 서빙까지 해야 하니 반길 수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프티콘에는 판매촉진비, 광고비 성격도 있어 수수료를 점주만 부담하는 건 부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판촉비용은 본부와 가맹점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도록 한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판촉비로 볼 수 있다. 기프티콘이 많이 팔리면 본부와 가맹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수수료를 가맹점만 부담하는 것은 한쪽에 과도하게 판촉비를 전가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패션·디저트 엮은 이색 상품 구경하세요" 롯데백화점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다음달 15일까지 패션 브랜드 '로라로라', 서촌 디저트 맛집 '빅토리아 베이커리'와 함께 컬래버 상품을 선보이는 '로라로라x빅토리아 베이커리'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레이지 선데이 피크닉(Lazy Sunday Picnic)'을 테마로 구성됐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대형마트 3사 바캉스 미션 '물가 잡기'

이마트, 국내산 1등급 돈육 40%↓
롯데마트, 주말 특가 먹거리 판매
홈플러스, 여름맛이 홈플러스 행사

시 결제 할인 및 '스노우포인트' 최대 7%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7월8초', 극성수기 휴가 시즌을 목전에 두고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대형마트 3사가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내산 1등급 돼지 삼겹살·목심을 행사카드 결제 시 40% 할인한다. 준비 물량은 200t으로 '쓱데이', '랜더스데이' 등 연중 최대 할인 행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27일부터 일주일간 복숭아 전 품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 판매한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샤인머스켓은 1팩 구매 시 1만2900원, 2팩 구매 시 1팩당 9900원에 판매한다. 한우 등심·채끝 전 품목은 29일부터 이틀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한우·양념 돼지고기·여름 제철 과일 등 바캉스 먹거리 주말 특가 상품을 판다. '롯데마트&MAXX' 카드 즉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호주산 곡물 비육 적아이를·부채살'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 40% 할인, 행사 카드 결제 시 추가 10% 할인한다. 비파괴 당도선별 샤인머스켓 1만900원에 선보인다. 29일부터 양일간 수원식양념돼지왕갈비구이를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 판매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바캉스 먹거리 할인 행사도 연다.

홈플러스도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홈플러스 썸머 슈퍼세일 홈플러스' 행사에서 대표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제공한다. 채널 별로 △마트&익스프레스 '1+1/50% 오픈런' △온라인 '매주 반값데이' 등을 진행한다.

행사 첫 주인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한우 반값' 행사 등 여름철 주요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29~30일은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을, 27~29일은 보리떡과 자란 캐나다산 삼겹살·목심을 마이홈플러스 '멤버 특가'로 50% 할인한다. 구제이 기자 sunrise@

동국제약 "센시아로 휴가철 다리건강 챙겨요"

다리 붓는 '정맥순환장애' 개선

여름휴가철 장기간 여행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다리 건강 관리다. 장거리 이동 시 좁은 공간에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무릎이 굽혀져 다리 정맥 내부의 혈액순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혈액이 정체되고 쌓여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정맥순환장애' 증상

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정맥순환장애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삶의 질 관련 질환으로, 다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평소 다리가 무겁고 아픈 증상을 자주 느꼈다면 장기간 여행 시, 피로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다. 이에 센시아처럼 입증된 의약품을 통해 꾸준한 관리로 증상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센시아(사진)는 '센텔라정량 추출물'이 주성분인 생약성분의 정맥순환장애 증상개선제다. 콜라겐 합성 촉진을 통한 정맥의 탄력 향상, 모세혈관 투과성 정상화 및 항산화 작용 등을 통해 발·종아리·다리가 붓고 아픈 정맥순환장애를 개선해 준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선로 사망사고에 1호선·KTX 지연... 무단진입 못 막나

구로~가산디지털역 구간에 진입
출근길 시민들 큰 불편 겪어
“경보 장치·펜스 등 조치 필요
선로 부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지하철과 일반·고속열차가 함께 이용하는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30분경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 선로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무단 진입했다. 승객 125명을 태우고 해당 구간을 지나던 경부선 KTX 열차와 충돌,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과 어떻게 선로에 진입하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KTX 열차가 수습을 위해 정차하고, 지하철 1호선·일반열차·KTX가 선로를 조정하면서 열차 운행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었다. 오전 7시42분경 모든 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사고 수습 여파로

지연은 오후까지도 계속됐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고속 및 일반열차 43개가 20~98분 지연됐고, 전동열차 59개는 10~75분 가량 늦어졌다고 밝혔다.

잇단 열차 지연이 출근 시간과 맞물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졌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시민들은 지연 안내 방송을 듣고 버스 및 택시로 갈아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아 꼼짝없이 열차에 갇혔던 시민들은 지각을 면치 못했다. 서울에서 세종까지 KTX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49) 씨는 “아침 6시40분 열차가 지연 출발해 용산역까지 1시간, 그 후 구로역까지도 계속 밀려 결국 평상시보다 2시간 늦게 회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무단진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걸까. 철도안전정보통합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다. 특히 철도사고 유형 가운데 무단진입 사고를 포함한 공공교통사상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선로 무단진입 경보 장치, 철도 선로용 펜스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는 지적이 나온다.

강영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취약지구 중심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 후 후속조치 성격이 있다”며 “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로와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구간은 운행 열차 편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지하철, 수도권 전철, 무궁화·새마을 등 일반열차, KTX는 물론 컨테이너 수송 화물열차까지 통과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수도권 전철망은 전국으로 확장됐다. 도시 연결 전철 서비스인 KTX 수요도 폭증했다. 그러나 선로 용량 부족으로 수도권 전철, 국철의 선로를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다.

류재영 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 4.0대표는 “표준열차제도에 따라 선로 이용이 가능해 빌려 쓰고는 있지만 원래 KTX는 수도권 전철 플랫폼을 지나도록 하면 안 된다”며 “성격이 다른 열차가 같은 선로를 이용하면서 사고 발생 확률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로나 재확산세... 자가진단키트 판매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편의점에서의 진단 키트 판매도 크게 늘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월 첫째 주(2~8일) 15만명대, 둘째 주(9~15일) 18만명대로 늘더니 셋째 주(16~22일)에는 25만명대로 급증했다. CU에 따르면 이달 18~24일 기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매출은 직전 주 대비 34.8% 늘었다. 이날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k@

몸 사리는 조폭들... 檢 소탕 작전에 위축?

관혼상제 때마다 집결하는데
칠성과 두목 사망에도 ‘잠잠’
檢, 해체 기초... 실시간 파악

과거 서로의 결혼식, 장례식 등 주요 행사 때마다 결집해 충돌하던 조직폭력범죄 집단이 최근 조용해졌다. 검찰이 본격적인 강력범죄 소탕에 들어가자 전국 폭력조직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칠성과 조직 두목인 이강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지역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큰 소동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 씨는 2010년대 초반까지 칠성파를

이끌었다.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조직 내에서는 두목으로 불린다고 한다. 지난해 진행된 이 씨의 팔손 잔치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많은 조직원들이 몰리며 관심을 끌었다.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행사 인력을 배치했다.

조폭은 그들의 관혼상제 때마다 집결하는 경향이 있다. 평소에는 조용한 듯 지내다가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행사에 참석하며 모습을 드러낸다. 다른 조직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력 과시용이거나, 행사 도중 후식 모를 타 조직과 다툼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이 씨의 장례식이 조용히 끝난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조직범죄에 대한 검찰의 강한 경고 메시지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다. 검찰은 최근 폭력조직 엄벌을 넘어 해체 기초를 유지하고 있어 칠성파를 비롯한 전국 조직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지난달 30일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긴 것이 전국 폭력조직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일선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폭력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지역 경찰들이 사전에 주의를 주고, 조직원들도 내부적으로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수노아파 신규 조직원들이 활동하다가 줄줄이 구속되며 ‘자칫 잘못하면 사건에 엮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김이현 기자 spes@

29년만에 체포 ‘보복살인’ 조폭 추가 기소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

반대파 조직원들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9년 만에 체포돼 살인죄로 구속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이수권 검사장)은 26일 오전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영산파 행동대원 A 씨를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재판에 넘긴 뒤 이날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1994년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뉴월드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등 4명을 칼로 찔러 2명을 살해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고문·행동대장·행동대원 등 조직원 10명은 대부분 무기징역 내지 10년이

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A 씨는 밀항해 기소되지 처분을 받았다.

도피 생활로 지친 A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신고 후 입국, 해양경찰에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께로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밀항해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뉴월드 호텔 살인사건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공소시효 완성이던 2003년 가을 중국으로 밀항해 약 2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송석주 기자 ssp@

전후 韓 재건하는 미군 고스란히... 영상자료원 첫 공개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공개

6·25 전쟁 발발 이후 건물이 모두 파괴된 영등포 국민학교 터에 모여든 아이들의 이야기는 수업을 받고 있다. 경성방직공장 터에는 철근 구조물만 앙상하게 남았다. 모두 50~70년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영상들이다.

26일 오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최초 공개된 영상에는 미군과 UN이 주도한 전후 재건사업 활동이 상세하게 담겼다.

이날 영상 해설자로 나선 강성현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시선은 ‘시혜를 베푸는 미군의 모습’을 포착하려 하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포착한 한국인의 모습 또한 굉장히 밝다”면서 “능동적으



1960년대 파주올곡중고등학교에서 미군과 교직원, 고등학생들이 함께 교정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영상자료원

로 재건에 참여하고 자조(自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

영상은 1953~1971년 주한미군 주도로 진행된 소규모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의 장면들이다. 당시 미군부대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교회, 보육원 등 공공시설을 재건하고 음식 배급과 교육 사업을 펼치는 등 6600여 건

의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그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도서관 등에 소장돼 있던 것을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굴, 입수해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발효된 1953년 7월 27일 원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6학년 국어책을 이송하는 장면은 사료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강 교수는 “정전협정 발효일에 관련된 영상은 주로 군인이 등장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미군이 배달한 교과서를 받아든 교사와 어린이들 모습이 나온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번 영상은 27일부터 한달 동안 한국영상자료원 KMDb VOD 기획전을 통해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박꽃 기자 pgot@

‘신림동 흥기 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33세 조선

서울 신림동에서 흥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조선(33·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는 공개된 장소에서 흥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죄의 중대성 및 잔



인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흥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김이현 기자 spe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Cool하게

낮부터 거래하는 미국주식

“밤에만 거래하란 법은 없으니까!”

하나증권 미국주식 주간거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서머타임 적용]

(서머타임 미적용 시: 오전10시 ~ 오후 5시30분까지)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란?**

미국주식을 국내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신청없이 기존에 거래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문 가능)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 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별로 상이하므로(주요 국가 온라인 수수료 : 미국 0.25%, 중국 0.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등을 참고 바랍니다. *미국 주식 매매 시 주당 0.003USD, 매도 시 0.0008% 제비용이 부과되며 기타 해외주식 거래 제비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내달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비극 막을 것”

‘교권회복’ 초등교사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중 약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교시) △학생인권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 교시 교내 ‘교사의 역할’ 법제화 추진

학부모 소통·대응 매뉴얼 마련 “새내기 교사, 약성민원 방치 차단”

조례 재정비 △학부모 약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8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교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정화 하면 학생 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 법제화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학부모 약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약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7일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활동에 대한 고충을 전해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후에도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교직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교시안을 8월 내 마련키로 했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또한 정비에 나선다. 손현경 기자 son89@

〈충북교육감〉

“교사는 예비 살인자”... 윤건영, 특강발언 사과

“교사 역할·책임 등 강조 위한 것 엄중한 시기 상처받은 분께 사과”



‘교사는 예비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윤건영(사진) 충북교육감이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다.

윤 교육감은 26일 충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시기에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윤 교육감은 “(전날) 강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역할과 책임, 진정한 교사의 자세 등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혔

다”고 해명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25일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들은 예비 살인자라고 인정하고 교사가 돼야 한다. 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안 되겠다” 그러면 자퇴하고 나가라”고 말했다. 윤 교육감의 발언은 최근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교사의 사명감과 교권보호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교육감의 특강 내용 일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교사들은 교육감이 교사를 대하는 인식이 ‘충격적’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익

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서이초 교사가 교권 침해로 사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육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하나”면서 “교육감이 교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없는가”라고 씁쓸해했다.

교원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역 교육계의 수장조차 이런 시각으로 교사를 보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초교조는 “지금 교육계는 동료교사를 잃은 비탄에 빠져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교사들이 자기 검열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세뇌에 가까운 잘못된 인식을 심으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교육청 ‘생태교육 조례 폐지’ 재의 요구

환경교육·노조 지원 포함 3건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초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외부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뒤 다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환경교육 조례’로 대체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교육청은 “환경교육법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및 2022 개정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로 제한하는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재의요구 대상에 올랐다. 교육청은 노조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적용 대상이라며 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에 명시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위조례안들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의회에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www.amaranth10.com | 대표번호 1688-5000

DOUZONE

비즈니스의 미래는 바로 지금부터

ERP, 그룹웨어, 문서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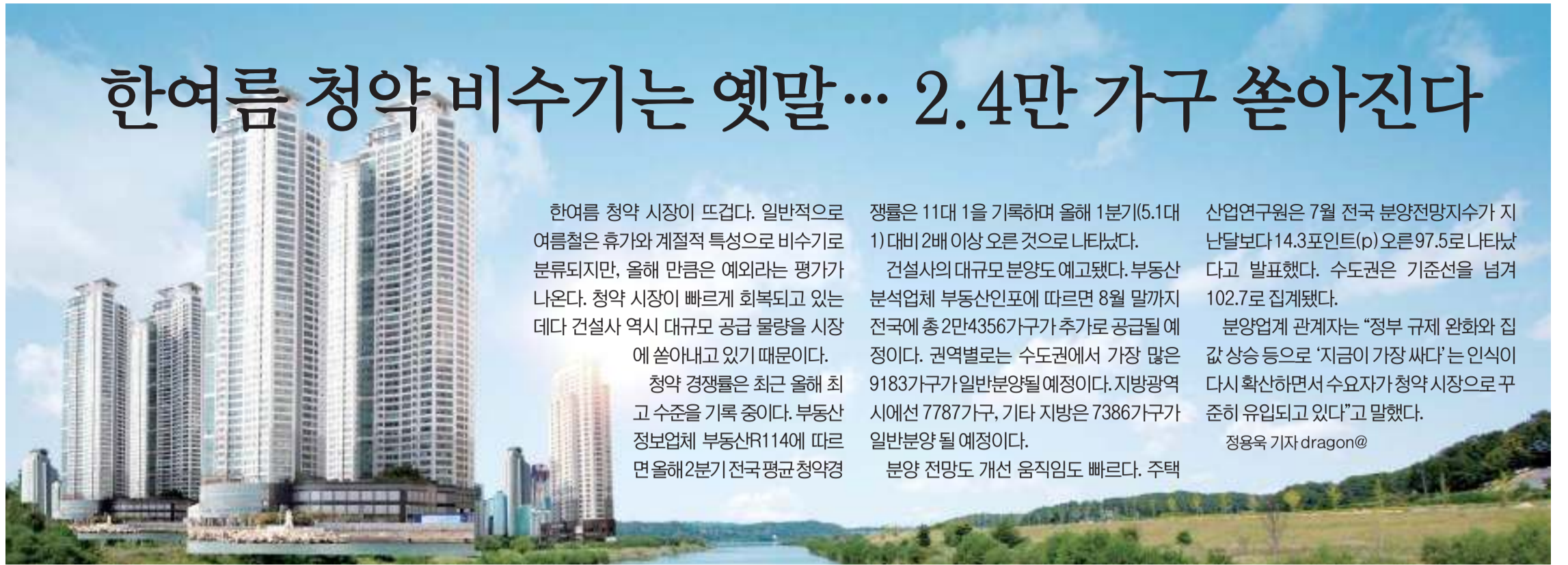
Amaranth 10



Amaranth 10 더 알아보기



-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 회계관리
- HR
- Groupware(UC)
- 임직원 업무관리
- CRM
- 웹오피스(문서 관리)



한여름 청약 비수기는 옛말... 2.4만 가구 쏟아진다

한여름 청약 시장이 뜨겁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은 휴가와 계절적 특성으로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 만큼은 예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약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다 건설사 역시 대규모 공급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은 최근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

쟁률은 11대 1을 기록하며 올해 1분기(5.1대 1)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대규모 분양도 예고됐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전국에 총 2만4356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918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방광역시에선 7787가구, 기타 지방은 738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전망도 개선 움직임도 빠르다. 주택

산업연구원은 7월 전국 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14.3포인트(p) 오른 97.5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기준선을 넘겨 102.7로 집계됐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등으로 ‘지금 가장 싸다’는 인식이 다시 확산하면서 수요자가 청약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삼성물산 동대문구 이문1구역 ‘래미안 라그란데’

‘교통·편의·교육’ 삼박자... 친환경 단지로 조성

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라그란데’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3069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 동 규모로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92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2㎡ 45가구 △55㎡ 173가구 △59㎡ 379가구 △74㎡ 123가구 △84㎡ 182가구 △99㎡ 10가구 △114㎡ 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래미안 라그란데 인근은 활발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동대문구 내 신형 주거타운으로 변신 중이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1호선부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 노선까지 들어설 계획인 청량리역과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이문초와 석관중고, 경희중·고(사립) 등이 단지와 가깝다. 한국외대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대학교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으로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이 단지에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조경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테마정원과 순환형 산책로가 계획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에 앞서 사전 홍보관을 사업지 근처인 동대문구 청량리역 3번 출구 인근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2층에 마련했다. 이곳에선 전문 상담사를 통해 사업지 정보와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분양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대우건설 대구 동구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교통·생활·교육 인프라 편리

대우건설이 대구 동구 효목동 일원에 조성되는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잔여 가구에 대해 동호수 지정 분양 중이다. 단지는 대구 동구 효목동 430-4번지 일대에서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3개 동, 전용면적 78~112㎡, 총 79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78㎡형 138가구 △84㎡형 517가구 △112㎡형 139가구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638만 원이다. 이곳은 교통·생활·교육 등 여러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 먼저 도로로 대구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KTX, SRT, 동대구터미널이 있는 동대구 역복합환승센터를 오갈 수 있다. 동대구IC 및 신천대로의 접근도 좋다. 여기에 영화관을 비롯해 아쿠아리움, 서점 등이 있는 신세계백화점(대구점)과 현대시티아웃렛(대구점), 이마트(만촌점), 효신시장, 동구시장 등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로로 효신초를 통학할 수 있고 주변에는 동부중, 동원중 등의 학교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도 크다. 동구에서는 △재개발 11곳 △재건축 9곳 △소규모재건축 5곳 △가로주택정비 7곳 등 총 32곳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4호선) 연장선 건설사업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마련됐다.



DL이앤씨 강원 원주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원주 첫 ‘C2 하우스’ 특화 설계

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분양 중이다. 최근 고분양가 분양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74㎡형이 분양가 3억 원대로 책정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과 함께 DL이앤씨 특화설계도 적용됐다. 이 단지는 원주시 최초로 ‘C2 하우스’ 특화 설계로 구성됐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집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휴식이 모두 가능한 ‘멀티유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e편한세상만의 주거 플랫폼이다. 실수요자와 함께 투자수요 유입도 기대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137가구 △74㎡ 213가구 등 총 350가구가 소형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 생활 편의성도 갖췄다. 반경 3km 내 2곳의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해 대형 종합병원(원주의료원, 세브란스기독병원), 법원, 시립도서관,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있다. 서원주초와 남원중 등 학교도 형성돼 있다. 이 밖에 수요자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금 10%를 두 번씩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한화건설 인천 미추홀구 ‘포레나 인천학익’

서울·송도·청라 등 접근 수월

(주)한화건설부문이 시공하는 ‘포레나 인천학익’이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조성되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562가구 규모다. 단지는 뛰어난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다.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도 쉽다. 또 수인분당선 인화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도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있다. 생활 인프라도 좋다. 법원 등 공공기관이 모여 조성되는 ‘행정타운’이 근처에 있다. 약 3만8950㎡ 규모의 미추홀공원도 가깝다. 풍부한 교육 인프라도 장점이다. 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화사대부고 등 여러 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화대학교도 1.2km 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포레나 브랜드만의 단지 구성도 돋보인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넓은 동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지상주차를 최소화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다음 달 초 학익시장 인근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현대건설 대전 유성구 ‘힐스테이트 유성’

국가산단 수혜 기대... 중도금 무이자 부담 ‘뚝’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1-29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유성’을 분양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 동, 전용면적 84㎡ 총 47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유성구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고 SK온 등 대기업의 투자가 예정된 곳이다. 산업단지 유치로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쌓인 미분양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힐스테이트 유성은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의 부담을 낮췄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와 계약금 5%에 대한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입주자를 위한 입주청소, 공간갈선서비스, 조식 배달서비스가 제공되며 세탁서비스, 방문 세차, 펫케어, 아이 돌봄 등 7개의 호텔식 서비스 플랫폼도 제공된다. 힐스테이트 유성은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단지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과 갑천역이 가



깝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추진)이 유성온천역에 정차 예정이라 향후 1·2호선 환승이 가능해지고 KTX·SRT 대전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한밭대로와 계룡로, 온천로, 월드컵대로 등의 이용이 쉬워 대전 전역으로의 차량 이동도 편하다.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홈플러스 유성점, NC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시설과 메가박스, 유성온천역 일대 대형병원 및 상권 등의 편의시설이 가깝다. 장대초 장대중, 유성고,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등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춰져 있다.

롯데칠성음료 탐스제로

0칼로리 과일향 탄산음료...월 600만캔 판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3월 말 선보인 제로칼로리 과일향 탄산음료 '탐스제로'가 매월 600만 캔 이상 판매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탐스제로는 제로칼로리 제품으로 당과 열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탄산가스 불량은 높여 특 쏘는 청량감을 강화했다.

과일향을 더해 마시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한 맛을 살렸다. 선호도가 높은 과일향 중심으로 신제품을 확대해 오렌지향, 레몬향, 사과·키위향, 파인애플향, 청포도·석류향, 복숭아·패션후르츠향 등 총 6종이 출시됐다.

패키지는 355mL 캔과 340mL, 600mL, 1.5L 페트 제품에 이어, 올해 4월 오렌지향과 파인애플향 340ml 병 제품 2종을 출시했다.

캔과 페트 제품에는 맛 별 대표 과일 이미지를 넣어 제품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페

트병 제품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슬림한 형태로 굴곡과 홈을 넣어 그립감을 높였다.

병 제품은 최근 증가하는 외식 트렌드에 맞추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점 전용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1978년 제품 출시에 앞서 사내 공모를 통해 '탐스럽다'라는 우리말에서 착안해 제품명을 탐스로 하고 '탐스러운 과일의 맛'이라는 콘셉트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웠다.

리브랜딩 된 탐스제로는 다양한 과일향과 제로칼로리의 강점을 앞세워 '매일 새로움을 탐해' 콘셉트와 함께 인기 걸그룹 '(여자)아이들'을 모델로 앞세워 브랜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탐스제로는 칼로리 부담 없이 달콤상큼한 맛에 6가지 제품으로 다양하게 골라 마실 수 있는 재미까지 더했다"고 말했다.

동서식품 카누 바리스타

한국인 선호하는 아메리카노 맛·용량 담아



예년보다 후끈한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아이스크림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보다 간편하게, 풍부한 맛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동서식품은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KANU BARISTA)'의 아이스 전용 캡슐을 출시, 여름 아이스 커피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올해 2월 출시한 카누 바리스타는 동서식품이 50여 년간 쌓아온 커피 제조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아메리카노의 맛과 용량을 구현했다. 에스프레소 중심의 기존 캡슐커피와 달리, 카누 바리스타는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맞게 시중 대부분의 커피 캡슐 대비 약 1.7배 많은 9.5g의 원두를 담았다. 캡슐 하나로 풍부한 양의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 셈이다.

카누 바리스타 머신은 에스프레소와 물이 각각 별도의 노즐에서 나오는 '듀얼 노즐 바이패스' 방식

을 통해 깔끔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구현한다. 특히 여름철에 더 많이 찾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최적화된 아이스 전용 버튼을 갖춰, 원터치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동서식품은 여름을 맞아 카누 바리스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용 캡슐 2종 '조이스플스노우'와 '와일드 워터풀'을 선보였다. '조이스플스노우'는 라이트 로스팅한 원두에 매력적인 와인향과 가볍고 산뜻한 산미가 느껴지는 아이스 블렌드다. '와일드 워터풀'은 다크 로스팅으로 깊고 풍부한 바디감과 스모키한 초콜릿 향으로 진한 커피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한편 동서식품은 방문객들이 카누 바리스타 캡슐 커피 제품을 직접 맛보고 특별한 경험까지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서울 한남동 맥심플랜트 지하 2층에서 8월 31일까지 '카누 캡슐 라운지'를 운영한다.

SPC 배스킨라빈스 춘식이가 반할수박에

청량함 살리고 상큼함 더해... 입안이 달콤

SPC 배스킨라빈스가 카카오프렌즈의 인기 캐릭터 '춘식이'와 함께 여름 시즌을 맞아 과일 플레이버 '춘식이 반할수박에'를 한정 출시했다.

'춘식이 반할수박에'는 춘식이가 좋아하는 여름 대표 과일 '수박'으로 만든 시원한 '수박화채'를 연상시키는 비주얼과 맛이 특징이다. 무더운 여름 가볍고 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과일 플레이버다.

시원한 수박 향이 느껴지는 빨간색, 초록색 '수박 소르베(Sorbet, 얼린 과일로 만든 디저트의 일종)'로 청량함을 살리고, 파인애플 소다 맛의 '파인소다 사베트'가 상큼함을 더했다. 여기에 파인애플 다이스가 쏙쏙 박혀있어 씹는 순간 입안에 달콤함이 가득 퍼진다.

배스킨라빈스는 7월 이달의 맛으로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춘식이(라춘듀오)'와 협업해 라이언을 닮은 노란 망고 플레이버 '라이언 망고 마카롱'을 출시했다. 또한, 비치볼과 비치타월, 비치백 3종을 한 세트 구성한 '카카오프렌즈 비치 세트'까지 선보이며, 귀여운 라춘듀오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과 굿즈를 출시했다.

SPC 배스킨라빈스는 '라이언 망고 마카롱' 인기 에 힘입어 '카카오프렌즈 트래블 캐리어'도 이달 내놨다.

'카카오프렌즈 트래블 캐리어'는 여름철 여행이나 야외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굿즈로, 귀여운 라춘



듀오가 망고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활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인기 캐릭터 춘식이와 함께 여름을 맞아 제철 과일 '수박'의 맛을 살려 가볍고 청량한 '춘식이 반할수박에'를 출시했다"며 "무더위에 지친 모든 분들이 배스킨라빈스의 수박 아이스크림으로 행복하고 달콤한 추억만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고품질 핀란드산 오토로 만들어 맛·영양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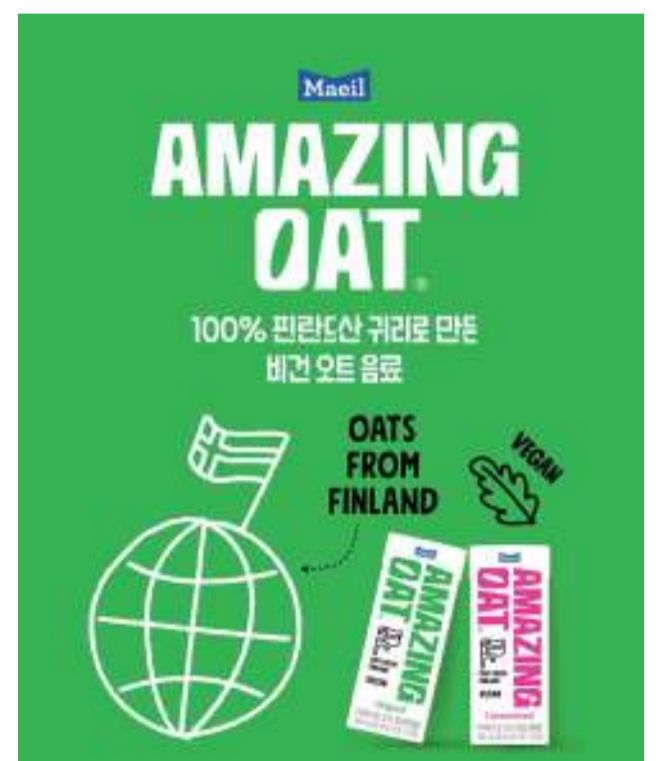
매일유업은 비건 오트 음료 '어메이징 오트'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메이징 오트는 고품질 핀란드산 귀리를 원물 상태로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 오토 껍질의 영양성분까지 그대로 담은 제품이다. 어메이징 오트는 190ml 언스위트, 오리지널과 950ml 대용량 바리스타까지 총 3종으로 출시됐다. 3종 모두 한국보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받은 100% 식물성 음료다. 환경과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번 리뉴얼은 브랜드 로고나 제품 패키지 등 디자인 변경은 물론, 오토 함량을 높여 고소한 맛을 강화했다. 새로운 브랜드로 고는 핀란드산 오토 원물 그대로의 색상인 오토 베이지와 식물성 식품·친환경을 상징하는 비비드 그린 컬러를 사용했다.

오토는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곡물의 왕'이라고 불린다. 현미의 두 배에 이르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고,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베타글루칸의 함량도 높였다. 190ml 언스위트·오리지널의 오토 함량을 기존 11.3%에서 12.6%로 높였다. 이는 국내 최대 오토 함량이다. 점성 섬유인 베타글루칸은 소화 과정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한다. 끈적한 젤은 위장 내 음식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대장 내에서는 담즙산을 흡착한다. 이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장 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당과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킨다.

오토는 지구를 살리는 착한 곡물로도 알려져 있다. 재배 시 물과 토지자원을 적게 사용해 지속가능성이 높아서다. 매일유업은 지구를 살리는 오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메이징 오트에 종이팩과 종이빨대를 사용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고품질 핀란드산 오토로 만들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어메이징 오트는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며 "새로워진 어메이징 오트를 통해 오토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제품군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검가드

치주질환·시린이 위한 똑똑한 잇몸관리 방법



잇몸관리를 위해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 또 양치 도구 사용에 서툰 사람이라면 사용 편의성이 높은 가글제를 더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린이’로 불리는 치아지각과민은 찬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찌릿한 통증이 특징적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치아와 잇몸이 닿는 경계부 잇몸선이 패이는 경우다. 치아의 가장 바깥쪽 표면층을 형성하는 법랑질은 잇몸선과 가까운 곳일수록 취약하다. 잇몸선이 깊어질수록 법랑질보다 예민한 안쪽 상아질이 노출되기 쉬운 것이다. 상아질은 온도나 압력 등 외부 자극을 치수 신경으로 빠르게 전달해 통증이 더 잘 느껴지는 부위다.

문제는 찌릿함을 느낄수록 치아 위생에 소홀하기 쉽다는 점이다. 해당 부위의 치석과 치태가 쌓이면 염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시린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잇몸이 자주 붓고 양치 시 피가 난다면 이미 염증이 잇몸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 치주질환의 예방법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이다. 스케일링·잇몸 치료 후 시린 느낌은 잇몸을 덮고 있던 치석이 제거되고 치아 뿌리 근처가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증상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

치주질환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이 있다면 양치 시 더 면밀한 세정이 필요하다. 양치 도구 사용에서 서툰 사람이라면 사용 편의성이 높은 가글제를 더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동아제약의 검가드는 특허 5종 콤플렉스로 치은염 관련 균의 발생을 억제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한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과 함께한 시험에서 6주간 하루 세 번 제품을 사용하게 했더니 잇몸 염증 지수가 50.9% 잇몸 출혈 빈도가 56.9%나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애경산업 AGE20's '글로우핏 톤업 선키어 2종'

햇빛보다 빛나는 피부... 바캉스 뷰티 준비 끝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AGE20's' (에이지투웨니스)가 자외선 차단은 물론 피부 안색을 화사하게 밝혀 생기 있는 피부톤을 연출해주는 '글로우핏 톤업 선키어 2종' (GLOW-FIT TONE UP SUN CARE)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AGE20's 글로우핏 톤업 선키어 2종은 피부톤을 화사하게 가꿔주고 자외선 차단·미백·주름개선이 가능한 3중 기능성 화장품이다. 특히 민감한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자극테스트를 통해 저자극을 확인받았다.

해당 제품은 화사하고 확실한 톤업은 물론 피부 결점을 메워 매끈한 피부결을 완성해주는 '글로우핏 톤업 선택트', 맑고 투명한 톤업에 은은한 윤광 피부결을 연출해주는 '글로우핏 톤업 선크림' 2종으로 구성된다.

AGE20's 글로우핏 톤업 선택트는 피부 생기를 더하는 '피치로즈 베이스'와 환한 피부톤을 연출해주는 '화이트 베이스'의 2중 라페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피부를 완성해준다. 또 피부의 모공, 요철, 잡티 등 결점을 정돈해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고 메이크업이 들뜸 없이 밀착될 수 있도록 30시간 메이크업 들뜸 방지 시험을 확인받았다.

해당 제품은 건조함 없이 촉촉한 피부로 가꿔줄 수 있도록 피부 수분을 유지해주는 '수분 에센스 70%', 피부 깊숙이 수분을 전달하는 '마이크로 히알루론산', 불필요한 유분을 흡착하는 '다공성 구상 파우더' 등이 들어있다.

AGE20's 글로우핏 톤업 선크림은 맑고 투명한 피부톤을 완성해주는 로지 컬러의 베이스로 화사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수분감 있는 워터리 포뮬라가 피부에 가볍게 밀착돼 덧바를수록 들뜸 없는 윤광 피부결을 완성해준다.

해당 제품은 빛나는 피부를 완성할 수 있도록 피부의 자연스러운 광채를 완성해주는 '리플렉션 파우더', 피부 보습 및 진정에 도움을 주는 '자이언트캡슐 추출물' 등을 함유했다.

KGC인삼공사 정관장 활기력

“무더위 활력 전파” MZ가 짬한 모바일 선물템



정관장은 모바일 선물 시장을 공략한 맞춤형 제품 '정관장 활기력' 매출액이 최근 4년간 연평균 40%씩 성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정관장은 코로나19 이후 모바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2030세대가 늘자 '활기력 에너지박스', '활기력 JOY', '활기력 부스터박스' 등 온라인 전용 제품을 전략적으로 선보였다. 2007년 출시한 정관장 활기력은 앰플형 드링크 한 병 섭취로 기력을 보충할 수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6년 근 홍삼농축액에 생강, 대추, 구기자, 오미자, 황기 등 전통소재와 비타민 B, C를 배합한 앰플형 건강 드링크다.

정관장은 채널 특성에 맞는 합리적 가격과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앞세워 MZ세대 취향공략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활기력의 2030세대 구매 비중이 정관장 평균과 대비해 8%p 가량 높기 때문이다.

활기력 부스터박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출시 한 달만에 1만 세트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다. 활기력 부스터박스는 액상형 홍삼에 12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한 정관장 최초 이중복합 제형 제품이다. 초소형 정제 기술을 도입해 기능성 함량 비율을 높이면서도 목넘김이 좋도록 설계했다.

최근에는 정관장 활기력과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사 워너브라더스(Warner Bros.)의 DC코믹스 슈퍼히어로를 활용한 활기력 슈퍼히어로박스도 출시했다.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순간 빠르게 활력을 충전하는 콘셉트의 한정판 에디션도 선보였다.

정관장 관계자는 “때 이른 무더위에 세심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약 6조 원 규모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코로나로 2030세대의 건강관리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밀도케어TM 프로페셔널 샴푸

탈모·모발 밀도 잡고 스타일링까지 '긱'

LG생활건강의 프리미엄 탈모 기능성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탈모 증상과 함께 모발 속 밀도까지 개선하는 신제품 '밀도케어TM 프로페셔널' 샴푸를 출시했다.

닥터그루트는 남성엔 물론 탈모가 고민인 여성과 젊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탈모 솔루션을 제공하며 5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 탈모케어 브랜드다.

이번 신제품은 20대에서 50대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고객들의 가늘고 얇은 모발과 스타일링이 어려운 힘 없는 모발로 인한 고민을 케어하는 제품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초미세 마이크로 단백질과 모발 성분과 유사한 아미노산 11종이 든 프로펩타이드 콤플렉스를 포함한 포뮬러로,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모발의 밀도와 강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은 국내 기능성 헤어 제품으로는 최초로 인체 외 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

특허청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LG생활건강의 단백질 결합 기술과 충전 기술을 적용해 드라이 스타일링 '100시간' 지속 효능까지 구현했다.

이와 함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주성분을 첨가한 '미녹시놀 콤플렉스TM'의 함량을 닥터그루트 샴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였다. 또 신선한 배 과즙과 프리지어를 조합해 만든 향을 담았다.

제품 출시에 앞서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는 “사용 즉시 모발에 탱글탱글한 힘이 생긴 느낌”이라고 답했고, 99%는



“제품 사용 후 장시간 외출에도 드라이 볼륨이 유지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제품을 먼저 체험해본 소비자들의 핵심 키워드가 탱글함과 탱탱함일 정도로 체감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며 “탈모 증상만 개선하는 기존 탈모 샴푸에 아쉬움이 있거나, 모발에 힘이 없어 초라해 보인다면 닥터그루트 밀도케어TM 프로페셔널을 써 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광고 심의필 : 2022-1626-0014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겔 하나쯤
있어야지!

국민의 겔! 남궁민의 겔!
록소앤겔



테니스·골프 엘보우엔 **록소앤겔**

테니스 엘보우 주요 증상

- *팔꿈치 통증, 특히 주부들에게 발생
- *팔과 손목을 쓰는 동작에서 통증



- 테니스 엘보우
- 손손목 통증
- 어깨 통증
- 근육통, 관절통
- 타박상, 염좌(뺨)
- 요통

신입사원 만난 김준 “에너지 세상 원동력 돼달라”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전지적 CEO 시점’ 대화 가져

주유소, 이제 석유 파는 곳에서 전기 제공하는 발전소 개념으로 정답 없는 미래, 두려움 말고 자신의 역량... 기초체력 쌓기를



김준(오른쪽)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SK서리빌딩에서 열린 신입사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신입 사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을 단순히 석유화학업체가 아닌 탈탄소 중심의 친환경 회사로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7월 입사한 신입 사원들의 고민을 나누고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인 ‘전지적 CEO 시점’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입 사원들은 1987년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 시절 사회생활 첫발을 댄 ‘김준 선배’의 말을 듣고 여러 질문을 했다.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주유소의 미래와 향후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신입 사원에게 선배의 경험

과 경영진의 관점을 담아 솔직하게 조언했다.

그는 “주유소는 석유를 파는 곳에서 전기를 파는 하나의 발전소 개념으로 바뀌어 갈 것이고,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안 해본 일도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야 하고, 조금씩이라도 필요하다”며 “글로벌 역량, 데이터를 보는 능력, 재무

에 대한 기초 체력을 쌓고 어떤 업무를 하든 깊이 있게 파악하는 노력을 한다면 향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김 부회장 취임 이후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굴뚝 산업의 대표적 기업으로 실현 불가능한 도전이나 마잔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친환경 중심 회사로 과감한 체질 전환을 주문했다. 기존 석유 화학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그린 에너지 업종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10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새 비전 ‘올 타임 넷제로(All Time Net Zero)’를 선포한 김 부회장은 창립 100주년을 맞는 2062년에 창사 후 배출한 모든 탄소를 상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부회장은 이런 미래 에너지 사업의 비전을 실현할 키로 글로벌 인재 확보와 양성을 꼽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SK이노베이션 글로벌 포럼’도 그 연장선에 있다. 글로벌 포럼은 SK그룹이 해외 우수 인재 및 현지 전문가와 교류하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전략 실행에 힘을 더해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당시 김 부회장은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그린 에너지와 소재 기업으로 성장해, 그린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만들어가겠다”며 “지난 60년간 카본 중심의 에너지를 제공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입 사원들과의 만남도 SK이노베이션의 이런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동욱 기자 toto@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 前 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 대사에 이도훈(사진)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 담당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이 대사는 지난 4월 7일 외교부 1차관으로 이동한 장호전 전 주러 대사 후임으로 내정됐으며, 이날 공식 임명됐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38년 집권’ 훈센 캄보디아 총리 사임 발표... 장남에 권력 이양



38년째 캄보디아를 철권통치 중인 아시아 최장기 독재자 훈센(72·왼쪽 사진) 총리가 장남인 훈 마넷(45·오른쪽)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훈센 총리가 이날 국영 TV 특별 방송에 출연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방침이며 이를 국민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장남 훈 마넷이 몇 주 내로 새 총리가 돼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총리는 내달 10일 임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총리직이 물러나도 여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훈센 총리의 권력 이양 발표는 최근 그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나왔다. CPP는 지난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개 중 120개를 차지하며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총선 압승으로 훈센 총리는 5년간 집권 연장이 가능해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조아제약배 루키바둑 영웅전 김은지 5단, 초대 챔피언 등극

김은지(사진) 5단이 제1기 조아제약배 루키바둑 영웅전에서 챔피언에 등극했다.



조아제약은 김은지 5단이 25일 한국기원바둑TV에서 열린 제1기 조아제약배 루키바둑 영웅전 결승에서 권효진 6단을 불계승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김은지는 한국기원 규정에 의해 6단으로 승단했으며, 여자기사로는 처음 종합 신예대회 우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한편, 조아제약은 내달 제19회 항저우 아시아인게임에 참가하는 한국바둑대표팀의 선전을 지원하는 후원식을 열어 건강기능식품 ‘조아바이톤-에이(A)’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사진제공 조아제약

LH, 임대주택 아동에 도시락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한준·사진)가 여름방학을 맞아 220개 임대주택 단지 아동에게 ‘행복한 밥상’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LH 행복한 밥상’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생 자녀의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해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6만230여명의 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왔다. 올해 LH 행복한 밥상은 LH 사업비 11억 원에 메르세데스-벤츠 기부금 1억 원을 더해 총 12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국 국민임대주택 220개 단지의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백민웅 기자 pmw7001@·사진제공 LH

롯데홈쇼핑 가상인간 ‘루시’ 태국 라이브방송 진출

포바이포·환지그룹과 협약

롯데홈쇼핑의 가상인간 루시(사진)가 태국 라이브 방송에 데뷔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 롯데홈쇼핑은 실감형 콘텐츠 제작 기업 포바이포, 글로벌 물류유통기업 환지그룹 태국법인과 루시의 태국 진출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루시의 지식재산권(IP)을 제공하고 국내 상품을 기획·소싱한다. 포바이포는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기술



구현 및 고도화를, 환지그룹 태국법인은 라이브 커머스 운영, 홍보 등을 지원한다. 환지그룹은 동남아 전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태국법인은 최근 AI 솔루션,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루시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의 자회사로 동남아 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라자다’를 통해 태국 현지 라이브 커머스 연내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패션인플루언서로서 전문성을 살려 태국 패션·뷰티 상품을 소개하고 K-브랜드로 판매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지 연예, 광고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비주얼 휴먼으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peter@·사진제공 롯데홈쇼핑

하나금융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하나 웨이브스’ 3기 출범

하나금융그룹은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하나 웨이브스(Hana Waves)’ 3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웨이브스는 하나금융이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여성 리더를 육성할 목적으로 출범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웨이브스는 Women’s Actions, Voices, Emotions의 약자로 여성의 행동, 목소리, 감성으로 혁신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함영주(앞줄 왼쪽 아홉 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그룹 부회장 및 관계사 대표들이 하나 웨이브스 3기 선발된 여성 리더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총 70명 중 6명이 임원으로 승진, 하나 웨이브스는 그룹의 대표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3기는 그룹내 여성 관리자 직원을 대상으로 각 관계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추천을 받아 최종 28명이 새롭게 선발됐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현대차 김기양 영업이사, 누적 판매 6000대 달성

입사 32년 만...역대 7번째 기록

현대자동차는 대전지점 김기양(사진) 영업이사가 누적 판매 6000대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누적 판매 6000대는 현대차가 판매 명예 포상 제도를 운영한 이후 김 영업이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단 7명만 달성한 기록이다. 판매 명예 포상 제도는 누계 판매 △2000대 ‘판매장인’ △3000대 ‘판매명장’

△4000대 ‘판매명인’ △5000대 ‘판매거장’이란 칭호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김 영업이사는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영업 현장에서 뚝딱 32년 만에 이같은 기록을 달성했다. 그는 2021년 3월 누적 5000대를 판매하며 ‘판매거장’에 등극했다. 김 영업이사는 “고객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업의 핵심이자 고객 만족의 지름길”이라며 “무조건



좋은 차, 비싼 차, 신차를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차량을 추천한 것이 판매 비결”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인사

-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장관정책보좌관 김경태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실장 허승원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김수미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은정
- ◆교보증권 <승진> ◇본부장 △WM사업본부 김상규 △재무지원본부 강영석 ◇부서장 △DT전략부 오준혁 ◇지점장 △강남영업부 김상균 <신임> ◇본부장 △IPS본부 조성호 <신임> ◇파트장 △경영관리파트 김성균 △변화혁신PMO파트 전경일 △디지털마케팅파트 박성재 <이동> ◇실장 △변화혁신지원실 서성철 ◇담당 △WM사업본부 인사실 ◇부서장 △인사부 이경민 △재경부 김준오
- ◆한독 △의료기기 및 라이프사이언스(MD&LS) 사업부 총괄 이은천

마감 후



박일경
사회경제부차장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수원지법 평택지원(2건)·안산

에 관해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청구된 국회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 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탄핵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맞섰다.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현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

정치에 멍드는 법원

지원(1건), 전주지법(2건) 등은 정부가 신청한 공탁 10건 중 8건을 거부했다. 정부의 이의 신청에도 법원은 재차 “이유 없다”며 불수용 결정했다. 이로써 공탁 불수용 결정의 적법 여부는 민사담당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사회적 속의를 거쳐 국민 합의하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부 소관 정책들이 사법부 심판대에 연일 오르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법원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 많은 법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나해 9월 물러난 김재형 대법관은 퇴임식을 통해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법원 내부 솔직한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입법이 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

진 것이다.

그때의 현재와 지금의 현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할 만큼 원칙론자로서 정치적 성향이 없다.

한 고법 판사는 “정치력을 동원해 협의한 후 정무적으로 결론 내면 소모적인 논쟁 없이 끝날 사안들까지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온다”며 “설의은 주장에 시시비비를 가려준 법관을 향한 존경심은 전혀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듭된 ‘법원 흔들기’는 법관 사기만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결국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ekpark@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논현로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지난 23일부터 시작했다. 세정, 증착, 열처리, 노광, 식각, 검사에 이르기까지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치들이 대거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일본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3년 전부터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구축을 둘러싼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는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WA), △핵 공급국 그룹(NSG), △생화학 물질의 수출통제에 관한 호주 그룹(AG),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가 있다. 그러나 이들 체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의 가장 큰 한계는 비확산과 재래식 군사 관련 목표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민간 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 대규모 중요 공급망 교란, 신형 기술 통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중요한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합의(consensus)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회원국이 중요한 조치를 중단하거나 지연시켜 체제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통제품목이나 기술만을 정의하며,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라이선스 정책을 결정한다. 즉, 국가 간 일관성 없는 라이선스 정책은 불균형적인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통제의 효과적인 집행에도 구

멍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주요국들은 대체로 새로운 수출통제를 통한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만들더라도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자 한다면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마다 위협에 대한 인식과 위협 허용 수준이 다르

미중 경쟁속 공급망재편 급부상
대중의존도 높은 한국엔 큰 부담
안보·경제적 손익 면밀히 검토를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부상한 디리스크(de-risking)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EU와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인식에 괴리가 있으며, 서로 다른 대중국 전략을 취하고 있다.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한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수출통제를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수출통제를 미국처럼 광범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

용된다는 공통점 때문에 많은 경우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는 특정 개인, 단체,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외향적·전략적 목표를 갖는 반면, 수출통제는 특정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식별하고 제한하려는 내향적·방어적 동기를 갖는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수출통제를 비확산 및 재래식 안보 관련 목적에만 한정된 표적화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수출통제의 광범위한 전략적 활용은 공급망 재편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도 많은 국가들이 부담을 느낀다. 공급망 재편은 생산거점 이전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생산 및 물류 비용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수출통제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니어 쇼어링(nearshoring)보다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가속화할 것이다.

수출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부터 수출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국가로 공급망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미쓰비시종합연구소(MRI)의 연구가 지적하는 것처럼 프렌드 쇼어링에 기반한 공급망 운영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다르고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가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구축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된다면, 우리는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수출통제를 통한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구축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된다면, 우리는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수출통제를 통한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철강업계 전자상거래에 쏠리는 기대

기자수첩

이꽃들
산업부



철강업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복잡한 유통구조와 결제방식 등으로 대변되는 거래 관행이다.

철강 제조사와 유통사는 매월 초에 월 단위 거래 물량과 단가를 협상한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그 달의 판매 상황을 예측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연히 시장 가격이나 수요가 출렁이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유통사가 떠안는다. 물론 월말 결산 때 제조사가 거래 가격을 조정해 주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 초에 협상했던 물량을 팔지 못하면 판매하는 일이 다반사다.

시장 가격은 항상 출렁이고, 소비자도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힘든 구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온라인 몰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다. 동국제강은 ‘스틸샵’,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스틸포유’, 현대제철은 ‘에이지코어스토어’를 선보이며 판매방

사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 공급도 가능해진다.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철강 전자상거래 확대는 이미 예견됐고, 피할 수도 없다.

물론 변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대형 제조사가 유통 시장까지 장악한다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전자상거래를 안착시키기 위해 기존 유통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이유다.

오랜 시간 담보 기반 외상 거래나 ‘선판매 후정산’ 거래 방식의 관행이 지속되며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 판매와 동시에 가격과 결제가 완료되는 명확한 거래 시장으로의 변화는 생태계 전반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출혈만 야기하는 관행에서 이제는 벗어날 시간이다.

flowerslee@

이투데이, 말투데이

☆ 장 보드리야르 명언
“존재가 실재를 대신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사회학자. 그는 ‘소비의 사회’로 대중과 대중문화, 미디어와 소비사회 이론을 펴 유명해졌다. 현대인은 물건의 기능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한 그는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한다는 시뮬라시옹(Simulation) 이론, 더 모사할 실재가 없어지면서 실재보다 더 실제 같은 하이퍼리얼리티(극실재)가 생산된다는 이론을 제창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29~2007.

☆ 고사성어 / 서리지탄(黍離之歎)

나라가 망해 대궐터가 가장밭으로 바뀌어 황폐해진 것을 보고 한탄한다는 뜻으로, 부귀영화의 무상함을 탄식하는 말이다. 시경(詩經) 왕풍(王風)에 나온다. “저 가장 이삭이 무성하게 드러져 있는데[彼黍離離]/저 피에 싸이 났다/ 길을 지나가는 것이 느리며/ 마음속이 흔들린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한다/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찾는지 묻는다.” 주자(朱子)는 “주(周)나라가 수도를 옮긴 뒤 대부들이 옛 도읍을 찾아와 궁궐터에 기장이 자란 모습을 보며 왕실 권위가 땅에 떨어짐을 슬피 여기며 떠나지 못하고 한탄했다”라고 설명했다.

☆ 시사상식 / 공중권

타인 소유인 건물구조물의 옥상 이상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927년 미국에서 최초로 성문법을 마련해 주목된 개념이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철도시설, 저수지, 고속도로, 주차장, 하천 또는 기타 부동산 상공의 공중권을 매매, 주택·상점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 뉴욕시의 메디슨 퀘어가든이 공중권 매매의 대표적 사례다. 공중권은 도시의 한정된 지표 공간과 높은 지가로 인해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부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입체적 이용을 꾀하는 것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멧있는 숲 연구소장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2022년 유럽대륙 이주의 거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 촉발됐다. 그 해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안전처인 유럽연합(EU)으로 향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닿은 EU 국가인 폴란드는 이해에만 3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을 수용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도 100만 명의 피난민이 유입됐다. 이외에도 접경 지역인 루마니아, 헝가리로의 피난민 행렬이 이어졌고, 난민 포용성이 높은 독일로 향한 인구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선도하는 유럽이 난민 이슈에서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1년간 EU 회원국들은 총 63만여 건의 망명 신청 대부분을 거부했다. 망명신청건 1위 국가인 독일에서 약 20만 건의 신청이 있었고 약 13만 명이 난민의 지위를 얻었으나, 2위 국가인 프랑스부터 망명 허가 비율은 떨어진다. 이들 망명 신청자들은 정치적 박해와 인권 침해에 맞서 고국을 등지고 선진 사회인 유럽을 향한 터였다.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이 EU의 동쪽 국경에서 비교적 현대받고 있는 반면, 이외 지역에서 출발한 EU행 난민은 여전히 '하나의 유럽' 슬로건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유럽을 향한 난민은 지중해를 건너거나, 터키 등 동쪽 육로를 통한다. 따라서 위태로운 보트에 목숨을 의지한 채 지중해를 건너 달을 수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의 관문이 되는 국가들은 밀려오는 난민에 비명을 질러왔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폭증한 난민은 바다를 건너 유럽의 차가운 국경 앞에 도착하거나, 지중해의 비극이 되었다. 2015년 유럽행 난민의 단위가 수백만 명으로 폭증하자, 유럽은 분열됐다. 이민과 난민에 대한 포용 혹은 단호함이 유럽국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난민 행렬은 최근 다시 급증해 유럽의 선택을 중용하

시론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고 있다. EU는 유럽의 사회, 문화, 종교적 동질감을 유지하며 유럽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난민 수용을 제어할 것인지만, 인권 문제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유럽의 소프트파워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딜레마에 빠졌다.

EU는 위기 때마다 공동의 대응 정책을 제시했다. 난민 문제에도 EU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20년 EU 집행위원회는 '이민 및 난민 개혁' 초안을 제안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EU는 난민 책임 분담이라는 연대의식의 명문화화를 강조하며, 난민 수용을 거부한 국가는 1인당 2만 유로(약 2800만 원)의 기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연합 내 난민 이슈에 관한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EU

는 국경 밖 외부 울타리를 거래해 왔다. 제3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란 망명이 허가되지 않은 난민을 '안전한 국가'로 돌려보낼 수 있는 협력을 의미한다.

이는 2016년 EU-터키 난민협약을 거울삼아 EU와 국경을 맞닿은 국가에서 난민을 EU 쪽으로 보내지 않는 데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U는 이번에도 지중해를 넘기 위해 기차하는 튀니지와 제3국 협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10억 유로(약 1조4000억 원)의 지원금과 난민 유입 제어를 합의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U 이민 및 망명 개혁안은 3년간 정치적 합의를 모색하다 지난 6월 각료이사회 내무장관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됐다. 이 개혁안은 유럽의회의 표결 등 공동입법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이 안으로의 연대와 난민 인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阿·중동등서 유럽행 난민 잇달아 EU, 수용분담 두고 회원국간 갈등 내부연대-인권 사이 결정 주목돼

을 거부한 국가는 1인당 2만 유로(약 2800만 원)의 기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연합 내 난민 이슈에 관한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EU

특허, 특!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임시출원 제도 또는 가출원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특허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출원명세서를 정해진 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시명세서로 신속히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진행한 후 후출원을 통해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후출원은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의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거나 1년 2개월 내에 정규 서식에 부합하는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술개발과 특허권리화에 대한 속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혁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급하게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미국의 임시출원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 시행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약

임시출원 너무 믿으면 안돼

2500건의 임시명세서가 제출됐을 정도로 해당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임시출원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출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시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후출원이 무조건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시명세서에는 "a+b+c"의 실시예만 기재돼 있는 경우, (균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후출원의 "a+b'+c" 또는 "a+b+d"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은 우선권이 아닌 후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런 연유로 특허 분쟁에서 후출원이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주장 내지 항변은 빈번하게 이뤄진다. 세기의 특허전쟁이라 불리는 톨젠의 유전자기위 관련 글로벌 소송이나 애플과 에릭슨의 통신표준 특허에 대한 미국 무효심판 등 많은 사례에서 임시출원에 대한 우선권 향유 여부가 분쟁 결과를 뒤바꿀 정도로 첨예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사설

모나리자는 韓 경제 보고 과연 웃을 수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냈다. '모나리자 모호성'이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를 비유적으로 전망한 데서 유래한 용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모나리자가 미소를 짓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위시한 지구촌 경제를 내다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현대경제연 보고서 역시 우리 경제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안 보인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이 그렇다고 철학 혹은 신학 대상과 거리가 먼 일국 경제에 대해 불가지론을 펼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국내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와 미래 경기를 가능하는 선행지수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모나리자까지 거론했지만, 국가적 아킬레스건으로 기초 체력 약화를 지목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잠재성장을 하강 문제를 버려둔 채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단언한 셈이다. 따끔한 일침이다.

적신호는 이 보고서에서만 켜진 것이 아니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업을 제외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종합경기 BSI'가 93.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BSI 기준선은 100이다. BSI가 이보다 높으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긍정적,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그런 만큼 이번 지표가 반가울 까닭이 없다. 더욱이 기준선 하회가 이번으로 17개월째이니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따끔한 일침이다.

앞서 전날 공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뼈아프다. IMF는 수정 보고서를 통해 종전 1.5%에서 1.4%로 전망치를 낮췄다. 전망치 하향조정은 올해 들어 벌써 5번째다. 한국 경제에 대해 연속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격이다. IMF는 이와 달리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올려 잡았다. 한국만 열외로 취급하는 결과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반사이익 등이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거의 없다는 뜻인 것이다.

우리 내부 지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그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 소비, 건설·설비 투자,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와중에 성장률이 소폭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것이니 속은 빈 쪽정이나 마찬가지다.

어찌해야 하나. 합리적 고민과 기민한 행동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 관계자는 "외수 의존성이 높은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 체질 개선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족할 수는 없다. 각종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 유도 또한 서둘러야 한다. '중국 특수' 미련을 접고 시장 다변화 등 새길 찾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한국 경제를 보고 웃게 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일선 기업과 함께 부지런히 뛰어아 할 것이다.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러자

황보람
부산대 교수·사회복지학



정부는 지난 19일 폭우로 인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21일 현재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1990명이 임시 피난처에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직후에 집계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업과 운송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 역시 포함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피해 급증

기후 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확률이 점차 늘고 피해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 자연과 인공 건조환경, 그리고 자연·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을 것이다.

2004년 중앙정부가 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2020년 발표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및 지방정부의 관련 기본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응급안전 구조관리,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와 어린이 보호, 재난 안전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재난 안전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과 호주의 홍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가 소홀히 한 점과 앞으로 강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첫째, 홍수 리스크 관리는 토지개발 초기 단계부터 예방과 보호, 대비와 복구 계획을 병행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홍수피해가 오로지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토지개발과 인간거주 현상에서도 기인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후 복구는 리스크 관리 전략 중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개발과 건축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인프라 및 응급안전 관리 부문과 지역사회 부문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더욱이 홍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는 지역주민의 협조없는 무용지물이기 쉽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홍수 리스크관리 전략은 예방·복구 병행해야

셋째, 시민들에게 홍수와 대비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지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홍수현상에 대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투명하게 개방하고, 시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홍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보험제도가 그 한 예일 것이다.

홍수 리스크 관리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이전 피해의 교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값비싼 교훈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중호우와 홍수는 불가피한 자연현상일 수 있으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 따라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2024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끼와 재능이 뛰어난 노란우산 가입자 및 가족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자격 가입자 및 가족 (배우자 포함)

지원기간 2023년 7월 26일 (수) ~ 9월 8일 (금)

선발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카메라테스트, 3차 최종심사

지원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문의사항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

KBIZ 중소기업중앙회